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木)

英首相下院에서 平和確保를强調

二十二日호어外相演說을支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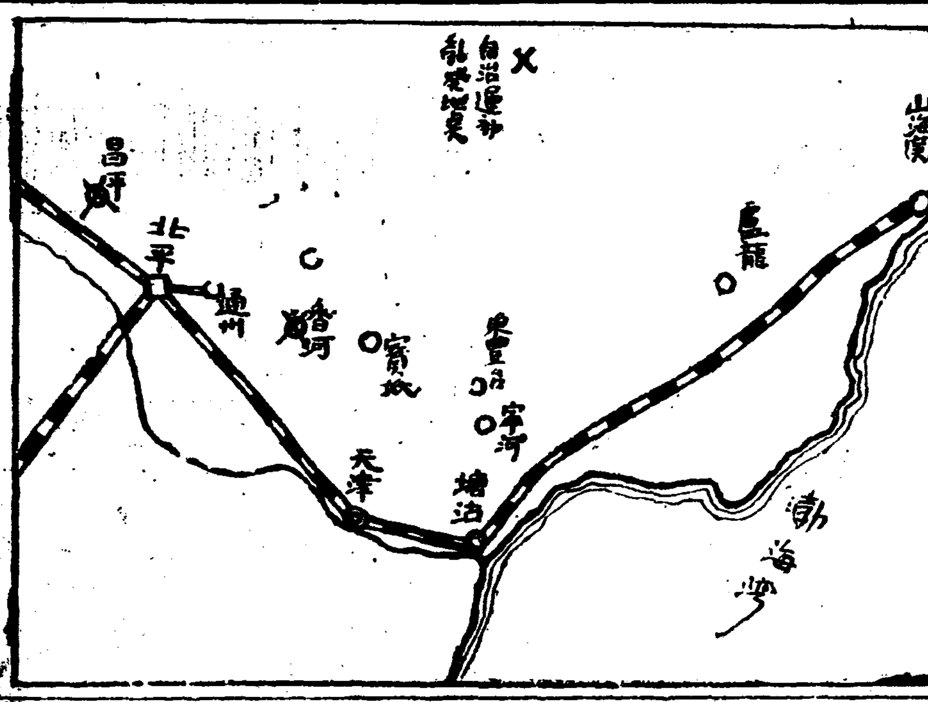
和協氣運漸次濃厚

【倫敦二十三日發同盟】英國議會第二日인 二十三日의 開會劈頭볼드윈首相은 下院에서 如左한演說을 試하엿다

伊에兩國은 다聯盟加入國이니 이見地로서도 伊에紛爭의 解決은 公正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各方面의 演說에서 示唆되고過激한 手段을 取하는것은 聯盟으로서는 今日도 不可能이다 吾人은 世界平和의 確保를 現在보다도 더一層 强化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余는 이에 聯盟의 失敗를 檢討하고저하지안는다 吾人은 먼저 聯盟에 對한 吾人의 希望이 達成되지못할 境遇에 如何한 코스를 밟을것인가를 明確히할 必要가잇다 호어外相도 二十二日의 演說에서 英國은 單獨行動에 나가지안코 聯盟各國과 提携하야 共同動作을 取할것을 分明히 하얏는데 余도 亦是 그것을 다시 附言코저하는바이다 吾人은 決코 戰爭을 意圖하지안는다 衷心으로『戰爭는惡이다』라고하는者이다 如何한 國家라도 戰爭을 意圖하는것은 極히 危險한 狀態이라할수잇으며 더욱이 一般言스가 政府를通하야 國民에게 提示되는 나라에 잇서서는 더욱히危險한것이다 吾人은 聯盟을 그創始者가 意圖하는것과갓흔 充分 힘잇는것으로 待遇하고저하지안코 도로혀 重要한 三國에依하야 只今聯盟은 一方的의것으로 되여잇는것을 알어야한다 그리고 議會解散은 二十五日 此를行하고 十一月十四日 總選擧를 行하기로決定하얏는데 이것은 現在國際情勢가 조금小康을 得한것을 指示하게되기 때문이며 萬若總選擧를 來年一月까지 延期한다면 今日보다도 더욱困難한 狀態에 逢着할는지도알수업는 까닭이다 (寫眞은 볼드윈首相)

伊態度軟化로 和協工作好轉

【巴里廿二日發聯合】制裁案發動을 旬日에 압두고 英佛伊三國政府間에는 바야흐로 活潑한外交折衝이 展開되여 伊에兩國軍의休戰及 紛爭處理和協工作은漸次 本格的段階에 入하엿다 交涉內容은 極秘에 附함으로 外間의 目測을 不許하나 佛國政府는 二十二日 閣議를 遂한結果『情勢好轉』을 確認하고 英國政府에서도 어느程度까지는和協工作에 留意하고잇는것은 호어外相이 下院에서 行한 意味深長한 演說로 想像키 困難치 아니라 그리고 本國 政府의 意向을 反映하야 羅馬에서는 大使 드라몬드氏가 再三 外務省을 訪問하고 스비치次官其他와 會見을 遂하야 着着折衝을 進行하고잇다 巴里에서는 라발首相이 英伊兩國大使와 協力하야 極秘裡에 工作을 進捗하야 못솔리니首相에 對하야 에디오피아에關한 最少限度의 要求條項을 提示한데 對하야 英佛兩國政府는 拒否하엿다고 傳한다 同時에 라발首相은 못솔리니首相에對하야 詳細說明을 加하도록 要請하엿다고 한다 或은 못솔리니首相으로부터 回示가잇는데로 英佛兩國 政府間에 새로운 協定이 遂捗 될것이라는데 所謂六項案은 에디오피아의名目的獨立을 支持하고 伊太利政府의 實質的要求를 滿足케하고 또 英國政府의 主張도 考慮한最後案이라고 傳한다 라발首相은 和協工作에 着手하는 同時에 六項案을 提示하엿다 右示案은 目下 英佛伊三國政府間에 實施의標的이되여잇다



不安에싸인北中略圖

英政界惑星

로이드죠지氏

首相演說을攻擊

佛蘭西의不信行爲도指摘

廿三日英下院에서

【倫敦廿三日發】二十三日英國下院에서 볼드윈首相의演說이 終了되매 政界의惑星로이드죠지氏가 登壇하야 首相은 只今 國際情勢는小康을 得하엿다고말하나 首相은 歐洲大戰以來 國際情勢가 今日보담도 險惡한時期가 잇섯는가를想起할수잇는가 萬若事實 小康을어덧다고하면 政府는 伊太利에對하야 何等의保障을 約束한것이 틀림업다 그러나 首相이 此를否定한다고하면 余는諒解하기困難하다고氏獨特한辯說로 首相의演說에 攻擊을加한다음 矛를佛國에向하야 佛國의 不信行爲를 詰難하야 滿場을 讓聽케하엿다 玆에 이른無任所相은 로이드죠지氏의 演說을論駁키爲하야 이러나 數週前對伊武器禁輸가 實施되기까지는 어느政府에서나 交戰國에 對한武器를 輸出禁할 義務는업섯다 佛國도 伊에兩國에對하야 武器를 輸出할수잇는權利가 잇섯든것이다라고 述하매 로이드죠지氏는 自席에서

왈왈附近에서

伊軍一縱隊全滅

에디오피아兵의報告

【아디스아베바廿三日發同盟】오가덴地方으로부터 歸來한 에디오피아兵의 報告에依하면 왈왈附近地方의 에디오피아軍은 通信上에서 重要視되는 伊太利兵四百名을 全滅하엿다고한다

右報道의 眞僞에 關하야는 아즉 確報되엿스나 에디오피아兵의報告에 依하면 에디오피아軍은 伊太利軍의 進路 近傍地點에 數箇의 納穴을 파서樹木의小枝와 岩片等으로써 巧妙하게 카모푸라즈하야 伊太利軍이 直前에 至하기까지 接近치안코 待機의 姿勢를 取하고잇다가 伊太利軍一縱隊가 臨前에 나타나자 그때에서 ...

陸相帷幄上奏

【東京電話聯合】川島陸相은 二十四日午前十一時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人事關係에 對하야 帷幄上奏하고 陛下의 裁可를 得한後 同十一時半 退去하엿다

『三國折衝은事實 決定的解決困難』

英佛伊和協交涉經過에對해

伊太利政府當局言明

【羅馬二十三日發聯合】英佛伊三國政府間의 和協工作은 一進一退하야 不順調의 狀態를 繼續하고잇는데 伊太利政府當局은 二十三日 和協工作의 經過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言明하엿다

伊太利政府는 英國海軍의 一部撤收와 交換的으로 리비아遠征軍中 一個師團을 撤回하기로 決定하엿다 英國政府는 地中海로부터 主要戰艦二隻을 撤收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右報道에 對하야는 아즉 確報는 업스나 事實이라하면 旅模한일이다 英佛伊三國政府間에 外交的會談이 進行되고잇는것은 事實인데 아즉 決定的結論에 到達하기는 자못困難하다 그러나 伊太利政府로서는 어데까지든지 交涉의 門戶를 閉鎖치안코 平和的解決의 길을 남겨두고잇다

伊南軍一部

又復英領에侵入

【아디스아베바二十三日發聯合】그라치아니將軍麾下의 소마리란드軍의一部는 南部戰線으로附近에서 又復 英領소마리란드國境에侵入하엿다고한다 但아직詳報는업다

金森法制局長官

遂辭職決定?

【東京電話聯合】國體明徵問題에 關聯하야는 最初在鄉軍人에서 그人事關係에 何等손이더인바가 업슴에 對하야 不再燃될 危險性은 十分잇슴은勿論이다 그一方 政府에서도 此際의 意向이잇섯다 軍部의 態度에依하야 一時鎭靜되어 國際問題가 一時小康되엇슴을보아

佛態度을言明

라首相下院에서

【巴里二十三日發聯合】라발首相은 二十三日午後 下院外交委員會에 臨하야 外交折衝經過를 說明한後 伊에兩國의 紛爭에關한 佛國政府의 立場을 言明하얏다 伊太利政府가 키레나이카 駐屯軍 一個師團을 撤收할것을 決定한 事實을 報告하야 못솔리니 首相의 今回의 決定은 伊太利政府의 和協的態度를 立證한것이며 英國政府도 또 伊太利政府의 友好的 제스츄어에 呼應하야 現在地中海上에 잇는艦艇의 一部를 撤回한것을 切望한다는旨를 述하고 이어서 聯盟規約擁護의 決意를 披瀝하야 말하되 英國政府로부터 最近聯盟規約第十六條第三項의 規定에 對하야 照會가잇섯는대 佛國政府는 聯盟規約第十六條第三項의 規定에 基하야 地中海에서英國海軍을援助할 用意가 잇는것을 거듭言明하얏다 佛國政府는 聯盟規約의 精神을 堅持하야 聯盟의 機構內에서 今回의 紛爭을 解決하도록 어데까지든지 努力할方針이다

對伊制裁覺書

獨政府受理

【伯林廿三日發聯合】獨逸政府는 二十三日 制裁調整委員 會議長 바스코세로스氏로부터 聯盟國의 對伊制裁에關한 覺書를 受理하얏다 但 獨逸政府는 이에對하야 如何한 回答을 할가에對하야 言明을 保留하고잇다

北中政權指目코 各派策動極猛烈

但、確乎한背後勢力은업는模樣

曹錕一派도乘機出馬

【天津廿三日發電通】最近北中政權을 目標로 各種策動이 行하야 民衆救濟를 標榜하야 나오는것이 香河縣城奪取이다 다음에北平地方昌平에서 民衆運動이 勃發하야 自治要求의 宣傳비라를 撒布하고잇다 그러나 此風潮는非戰區附近에 波及할可能性이잇스나 此等局部的現象을 가지고河北全省을 風靡하는 勢力이라 傳해서는 안되다 이밧게二十三日天津의 一部에 河北民主同盟會의 일홈으로 全省自治를 目的한 民主共和回復을 大總統曹錕을 내세워서 策動하는것도잇서 百鬼夜行의 狀態이다 自治同盟會의 宣言에도 憲法制定國會 開設等을 나열한 비라가 撒布되엿다 其他自治委員會라든가 各種各樣의 民主同盟이라든가 各種各樣의 空宣傳을 하고잇스나 모다 確然한 背景이업고 또其中에는 元總督府에서는 時局에鑑하야 일

神社整善具體策

各道에示達通牒

總督府에서는 時局에鑑하야 일즉부터 神社整善에關한 具體的方策에對하야 考究中이든바 이번에 成案하엿슴으로 各道知事에게 神社整善에關한 積極的方針을 示達通牒하엿다 其主旨는 從來神社神祠의 維持費에 對하야 崇敬者에잇서서 相當한負擔을하여도 尙且社費의不足을告하는 時는 關係地方團體로부터 其財政上支障업는限 神饌의設置 神社神祠의 維持와 神威發揚에 關한 必要經費의積極的寄附를認定할方針을 明白히하엿다 其他林苑의整理 社務의改善 神祠의神社昇格 基本財産의 造成等에對하여도 具體的으로 指示하야 神社神祠의整善에關하야 積極的으로 指導監督을 加할意圖를 明白히 하엿는데 總督府로서는 다시國幣社創立의問題 神社法規의整備 神社建築技術員의設置 神道常任講師의招聘等에對하여도 可及的速히實現하려고 考慮中이라한다

各道學務官會議

三日間總督府서開催

各道學務課長及 道視學官會議는 廿四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開催 總督府學務局關係官 各道學務課長 同視學官及各師範學校等 約卅名이出席 學務局長으로부터 訓示가잇슨後 即時 學務局主管指示事項의協議에入하엿다 指示事項은

(學務局主管)

一、國家觀念의涵養에關한件
一、敬神崇祖에關한件
一、初等學校의施設經營에關한件
一、初等學校敎育의 資質向上에 關한件
一、女子의就學率을向上하는件
一、中等學校의 人格修養의 徹底에關한件
一、校外指導監督에關한件
一、心田開發에關한件
一、寺刹保嚴保持에關한件

其他十三件

(殖産局主管)

一、工業敎育에關한件

(警務局主管)

一、初等學校生徒의 正當한警察

(專賣局主管)

一、煙草專賣의 主旨의周知徹底에關한件
一、農村所在의 公立普通學校及簡易學校로하여금 校下一般의 敬神 勸農共進熙樂의 中心으로하게할 具體的方策

이 課題에올러잇는데 會議는 二十五六兩日에도 續行하야 二十六日午後六時 政務總監官邸에서 今井田政務總監의訓示가 잇슬터이다

現行比率固持를

米海軍次官言明

【華盛頓二十三日發聯合】海軍次官스완손氏는 二十三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海軍縮少本會議에 言及하야 海軍縮少本會議는 海軍問題에 限局될것이라고 强調하야 現行比率固持를 言明하야 말하되 日英米 三國海軍會議에 關한 五、五、三의 現行比率은 依然公正하다 余는 華盛頓條約締結當時 極力同條約을 支持하고 下院 에서도 同條約의 通過에 努力 하얏다 現在도 右見解에 變化업다 海軍擴張要求에는 同意할수업다 最後에 海軍會議招請의境遇 席全權으로 作戰部長스탠드리 提督을 推擧할 旨를 言明하엿다

韓、馮兩氏와會見

【天津二十四日發聯合】濟南來電에依하면 韓復榘氏는 二十三日 泰山에 赴하야 馮玉祥氏와 會見하고 무삼 重要協議를 遂한後 同夜直時 靑島로 向하엿다

香河自治委員會

國民政府를否認

廿三日自治宣言發表

【天津二十三日發聯合】香河縣人民自治運動委員會는 安厚齋氏를 臨時縣長으로 推擧하는同時에二十三日大要如左한 自治宣言을發表하얏다

蔣介石의 國民政府와 國民黨을 絶對로 否認하며 今後苛斂誅求를 除하야 自救、自守、自決、自衞으로써 人民自治를 執行하는것을 原則으로한 土地의 公有에 反對하고 兼化의 侵入에防止하야 地方自治의 實行을 主張하야 農村의 救濟 苛斂의 雜稅와 田畑食鹽의 附加稅撤廢을 勵行하야 大衆의 福祉增進을 目的으로함

民世漫評

今古情勢의變動

種族民族과그批判

(五) 安在鴻

×

이제 本文第(四)의 末로부터 敗作함에 臨하야 本論文을 全然縮少키로하니 幸히 諒하시압

이제잠간 다시 汎論하건대 中國民族 가른者는 周 秦以降의 漢種族을 主軸로 東西南北 塞外의諸種族을 歷代에收容 消化한者이나 嚴正하게보아 그血統 感情이 아즉 純一하지 못하엿다 一個의 漢民族을 形成 못한者이라 그들이 現代資本主義社會로서의 正常한 發展成熟의過程을 밟지못하엿느니만큼 一層의 未完成한 民族으로된바이다 오늘날의 그區區不統一한狀態는 即資本主義的後進社會로서의 必然한 段階라고解說되는바이나 이血統 情感이아즉도 渾然合體치 못한것이 一層因의것을 觀取할 바이오 엥갤스가 이르되 一個民族이 近代에잇서 優越性을 자랑하는 一大民族이나 그러나 엥겔스는 人種이 移民족 異種族과 混合하야 完全한 一民族을 이룬것은 꽤나서 五六世紀間처서의 일이오 그동안에는 또相互間의 許多한 政治上의 葛藤을 겨고서의 일이다 成하는 本民族의 過去가 多數種族의合成인것을 들어 그黑化力의巨大함을 斷定한者 잇슴수잇스나 그러나 그것도 有更前後의 上代에잇서 幾多의 條件(下文에)을 어덧기 비로소 大陸과 海洋의 諸種族의 混合解消로 되엇다

이니 그것을 現代政治에서 援用함은 熟考를要할 歷史科學上의 一誤案이다

×

그리고 여기서 諸國의 民族生成史(即各種族 同化史)를 지어낸 根本的인 諸條件은 (1)各種族이 모다각각 原始要素이어서 現代 洗練된『民族』그것이 아닌것이오 (2)그들諸種族은 大體로 一定한自動的移住 또는移動으로 되엇스되(3)畢竟은 各地方의 原住種族의 틈에 갈래갈래 혜어져살어 緊密的作用이 엄게 되어온것이오 (4)그背後의 어떠한 힘의 要求이될 故土續土로부터 隔離되어 필경文化的孤立狀態에 빠진은 것이오 (5) 그러치 안흐면 종겁어서 그 數量이 서로 거의比等한 英國에서 되어온것이며 오 (6)그러고도 封建的이모든 上의 制

그리고 現代各國民中에는 天然地理와 其他의 條件이 幾多 一國民으로 數十世紀生長하는 途程에서 甚大한 進化的 外變을 겨거보지안코 그 實質的自負心과 情神的인 猛進性이잇서 그들이 現代 資本主義 組織의 完成과 아울러 더욱그 躍進性을 보련者도 잇는데이나 그禮한 國民일스록 한상主觀的이어서 他國民 他民族에 對한 客觀的 判斷에는 不充分한바 만혼수잇슨 것이오 그의 强烈은 往往獨善的傾向으로 되기되는 것이다

一個民族으로서는 그發展 成就過程을 밟의 自然히 比較的 近代의 成形態로서 諸條件은 大體로 모다 相反되는 事情이다 即現代와 上代는 그 歷史的 本質上으로 자못달은것이다

×

吾人은 이에서『앙사쓰丹』나 愛蘭이나 比律賓 等에서 多少의 例證을 들수잇는 바이오 先進社會의 權威者의 이에對한 批評을 援用할수잇스나 이제모다 割愛하다 다만 異民族에 對한 政治를 다루(取扱)는 爲政者들의 關心하여야할 同團의 無斷은 言語 또는 其他形式上의것에 잇는것이아니다 言語도 立論하여야 할 줄 생각한다는것이 그 화미한 一小關鍵이것이다 (續)

八面鋒

◇ 河北省에 突然自治運動蘇起! 잘 살것다는 民衆運動이라면 此亦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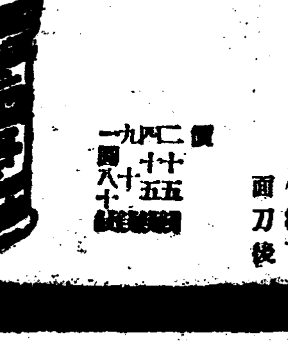
◇ 그所謂『孫文遺志(?)』는 알수업는일이나、事態가 尋常치아니한것만은 事實。

◇『對伊集團的制裁』는 聯盟의最後冒險』이라고 英外相이演說。

◇ 그런줄이나 알오시니 聰明한 노릇이오、無史上初試驗의 經濟封鎖를 一種의 國際遊戲로 알아서는 큰일。

◇ 十二月第一週부터 海軍軍縮本會議가 정말열리라나。

◇ 軍備競爭에、눈이붉은 列國代表가 一堂에모혀서 무엇을 議論하게될는지、생각만해도 괴로운일。



世界的家庭藥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탐

朝寒夜寒
살을貴重하게하십시요
婦人들게는
朝寒夜寒이
걱정될때입니다
살것칠기前에
멘소레-탐을
지금부터
準備하여두십시요

特效
살것칠고
벗에걸고
外傷
火傷
霜傷
鼻感氣
頭痛
齒痛
神經痛
痔疾
化粧下
面刀後

價
二十五錢
四十錢
一圓八十錢

國語徹底普及에 事實上廢止될 朝鮮語運命

今日開催된學務課長會議案과 注目되는今後結果

각도학무과장과 시학관 회의는 이십사일부터 총독부 제일회의실에서 도변(渡邊)학무국장의주재로 열리엇는데 이번회의에서는 국어(國語)사용의 보급철저에 관한것 초등교원의 소질향상에관한것 녀자교육의 확충 사찰존엄보지(尊嚴保持)、초등학교생도에 정당한 경찰관념의 양성에관한것 또 국체관념과 경신(敬神)사상배양등 여러가지항목에관한 협의를 하게되엇다한다

그리하야 이십여종의 지시사항을 분류(分類)하여 보면 사상선도를 목적한 국체관념과경신사상의양성 학교경영의방침등일 심전(心田)개발을위한 종교의부흥등으로 난호수잇는데 특히주목할것은 신도(神道)에관한 신앙이업는 조선인자제에게 경신사상을고취하며 또초등학교아동에게 조선어를사용치못하게하는일방 국어의사용을보급철저하게하는데잇서서 초등학교에잇서서는 교원이 이것을충분히지도하고 중등학교이상에잇서서는 교원의 지도보다 공학(共學)제의 실시회중과 국어로쓴도서(圖書)를 읽게하야 국어사용을 보급철저식히자는것을 지시하엿다한다 그리하야 현재초등학교나중등학교에잇서서 조선어의 교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교수함에 불과한상태인데 조선말의 사용을 금지하게된다면 사실상에잇서서는 조선어라는 과목의폐지에이르는 과정(過程)으로 특히 국어의 보급철저를 과하는것이니만치 이번회의의결과는비상히 주목된다

朝鮮語學會에 打字機를寄贈

평안남도 강서에 사는 김병준(平南江西金秉○)씨는 이백삼십구원이나 되는 한글타자기(打字機)한대를 시내화동(花洞)일백이십구번지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기증하엿다한다

商工課長偶印으로 就職斡旋詐欺한者

룡산서(龍山署)에서는 이십사일 아츰 시외안암리(安岩里)일백칠십팔번지 전상공과룡산분실(商工課龍山分室)고인 김마룡(金馬龍)(二○)을 인치취조중인데 그는지난팔월까지 상공과분실고인으로 잇슨것을 기회로 도화동(桃花洞)삼백번지의 사백이십사호 리덕보(李德寶)(三○)외에 세명에게서 상공과 고인으로 일선해준다고 하고는 팔십원가량을 속여먹고 당본(堂本)상공과장의관인을 위조하야 령수증을써주엇든것이라한다 그밧게도 다른죄가만흔모양으로서 방금엄중히 취조하는중이다

五、一五民間被告 最高禁錮五年 判決

今日午前十時確定

【東京電話同盟】오일오사건(五、一五事件)민간측공범으로 원래 신무회장(神武會長)이든대천주명(大川周明)(五○)박사 천행회장(天行會長)·두산수삼(頭山秀三)(三○) 자산숙두(紫山塾頭) 본간헌일랑(本間憲一郎)(四○)의 삼거두와 두산 본가량씨와가티 폭력행위로 취조바든 길강신경(吉岡信敬)(四○)의 네명에대한 병합상고심(倂合上告審)은 대심원형사 이부청수(淸水)재판장 봉정(棚町)검사계에서 지난 오월이십삼일부터 전후십일회에 빼처청뢰(淸瀨)제택(鵜澤)강전(岡田)삼박사를 비롯하야 령목(鈴木)등 십사명의 변호사여러가지 정황으로 복서 내란죄(內亂罪)로 심판하기를 주장한데 대하야 검사는 내란죄를 반박하야 원심판결을 지지하고 이심형은 부당하다고 론진하고 최후변론에 검사측에서는 살인、살인미수 폭발물취체 규측위반의 각방조죄(幇助罪)로 대천박사에게 징역십오년을 필두로 전부징역의판결을 바뎟슴에 대하야 이심에서는 이범죄의 집단성(集團性)이 인정되야 소요(騷擾)방조가 가입되야 량형(量刑)에도 금고형(禁錮刑)이 선택되야 감형되엇는데 피고측은 아죽도 내란죄로처단될것을 주창하야 불복하고잇고 검사측은 이심의형이경하다하야 상고한것인데 이사건의뜻을밧들어 이러난사건이 곳신병대(神兵隊)사건으로 몬저 내란예비음모죄(內亂豫備陰謀罪)로 처단되여잇는만큼 이사건이 대심원에서 어떠한판결이 잇슬는지는자못주목되는것으로 이십사일 오전열시삼십오분 개정하야 다음과가치 판결하고 동오십분 폐정하얏다

吉岡信敬 上告棄却 大川 頭山 本間의三名은 原判決을 破棄하고 如左히判決하엿다

▲禁錮五年(前審七年) 殺人幇助 元神武會長 法學博士 大川周明(五○)

▲禁錮三年(前審四年) 前記罪名外에 暴力行爲違反 天行會長 頭山秀三(三○)

▲禁錮四年(前審五年) 紫山塾頭 本間憲一郎(四○)

大川은 未決拘留 四百日通算 頭山、本間은 未決拘留三百日通算

千餘圓橫領한 靑年差人逃走

【京南】가을바람에 노라난사나회—시외한지면한강리(漢江里)오백칠십팔번지 한강정미소(漢江精米所)리봉혁(李鳳赫)씨의 고용인으로잇든 최수경(崔守景)(二○)은 이십이일 오후 시내여러곳에서 수금한돈 일천이백여원을 가지고 도망을 하엿다는데 경원선(京元線)을 타고 청진(淸津)이나 회녕(會寧)등지로 갓는한 혐의가잇다하야 소관동산서에서는 청진경찰서에의뢰하야 방금수배중이라한다

鐵道投身客

【永登浦支局電話】이십이일 오후일곱시십분봉천행(奉天行)제 오후열차가 영등포를 출발하야 로량진(鷺梁津)황정목장(荒井牧場)압길목을 진행할때 긔작히 청년한명이 선로에 뛰여들어 자살한일이잇서 소관영등포서에서는즉시 신원과죽은원인을 조사하여 보앗스나 아즉판명되지못하엿다는데 그는 이십삼세가량되여보이는 조선인남자로 외투를입고 회색의 양복바지를입고 품에든것은 손잡두개와 구두수거에『開城北本町明鮮館』이라 색여잇는것이 잇슴뿐으로 아죽신원과 죽은 원인을 알수업스나 생활난으로 자살한것이나 아닌가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東北地方으로부터 日本海及 朝鮮으로 펴지고잇다 低氣壓은 小笠原島海上에잇서 東進하는中이며 滿洲國中部와 天津附近에도 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는 時雨相半이고 朝鮮과 日本內地는 大槪好晴이다

昨日 最高 二三、九
氣溫 最低 八、九
今日 正午 二〇、八

滿警四十名全滅 四百土兵과交火고테

【新義州支局電話】이십삼일오전 두시경에 만주국집안현(輯安縣)경무지도관(警務指導官)오전(五田)부장이 인솔한 만주국경관대 사십명은 편하를순행중에 유력한홍군(紅軍)이백여명과 토병이백륙십여명의 일단을 맛나서 맹렬한교화끄테 만주국경관대는거진전멸상태에빠저서 방금응원대가 그곳으로급히향하엿다

茂昌對岸에 土兵團騷動

【解務局發電】이십이일오후다섯시경에 평북동흥(東興)경찰서무창(茂昌)주재소의 바로대안인장백현 구도구(長白縣九道溝)에무장단이십명이 나타나 그곳만주인부호동장성(董章成)의집에침입하야 방화한후 조선측경관에게발포함으로 무창주재소원 네명은곳출동하야 수분간 교전하야격퇴한후 조선측으로 도라왓다

花鬪하고꾸중들어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륙십륙번지박복동(朴福童)외 일곱명은 이십삼일오후 아홉시쯤하야 수송동(壽松洞)륙십칠번지 (이력)거방에서 화투를하다가 종로경찰서원에게 발각체포되야 방금동서에서 엄중취조를밧는중이다

同德女普校 勤續教員表彰式 二十六日午後一時에

부내 관훈동(寬勳洞)동덕(同德)녀자보통학교에서는 오는 이십륙일 오후한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십년근속교원 주교정(秋教貞)선생과 이십년 근속교원 평정소지(平井小枝)선생과의 표창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한다

教員辭任으로 泰和女生動搖

이십사일아침 부내 인사동(仁寺洞)에 잇는 태화녀학교(泰和女學校)에서는 일학년생도 오십오명과 이학년생도 약간명이합하야 돌연 동맹휴학을 하는일방 일학년생도 리인수(李仁壽)외 십여명은 학교문시간에 직혀서서 책보끼고 학교오는학생들을 들어오지못하도록 방해하다 이에 랑패한 학교당국은 소관종로경찰서 고등계로 사실을 통고하여왓슴으로 경찰에서는 고등계주임이 달려가서 전긔 리인수외 열세명을 검속하여다가 방금취조를 진행중인데 동맹휴학을 하게된 원인은 약사오일전에 그학교 교무주임장귀련(張貴蓮)일학년 담임 김운경(金雲京)의 두녀선생과 서긔(書記)량성민(梁成敏)선생이 돌연 학교를사직하엿슴으로 학생들은 그의담임선생이고 정들은 선생이니만큼 그사직리유가 어데잇는가하야 이십삼일 일학년반장(班長)박영선(朴英善)(一七)이가『빨랑스리』교장에게 그리유를 질문하엿든바 교장은 공부나잘하되지 그런리유를 알필요가 업다고합변으로 대답이자못모호함으로 일학년생들은 교장의대답은 학생을 너무나무시하는것이라 사직리유를 분명히 하는동시 사직한 전긔세선생을 복직식히기까지 동맹휴학을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야 이십사일 전긔와가티 동맹휴학을하게된것이라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동맹휴학의 리유가선명히되엿슴으로 검속하엿든학생은 대개돌려보내고 학교당국의처치에 맛기기로 되엿는데 학교 당국에서도 될수잇는대로 학생의긔청을 원화식히고저 노력중이라한다

咸興高普事件 言渡는二十六日

【咸興】속보=함흥고보학생공산주의연구크럽사건 제이회공판은 이십삼일 오후 다섯시까지 전반의 심리를 마치고 긔보와가치 최고삼년 최하이년의 구형이잇슨후 이어 여섯시 오십분까지 류해문(柳海文) 신태익(申泰益) 한격만(韓格晩) 유태설(劉泰卨)사변호사의열렬한 무죄 변호가 잇섯는데 언도(言渡)는이십륙일 오전팔시부터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폐정하엿다

"愉快하기론 今回飛行이最初"

本報空輸의大任을마치고歸還한 愼飛行士感想談

조선삼문사상에 획에포ー크를그은 본사의 삼문동수의 대사명의 절반을마친 조선민중의직청공의전령』인 본사긔『살무손』호는 객지의 하로밤을 대구(大邱)에서 보내고 이십사일오전열시이십분 그곳의 다수인사의성대한 전송속에 련병장(練兵場)을떠낫다

대구시가의 상공을 다섯번이나 저공비행을하야 이번거사에 만흔 성원과 환영을 기우려준 대구시민에게 공중으로부터 감사의뜻을 표하고는북을향하엿다 그리하야 천리봉정을 삼시간에 무사히 마치고 오후려시 사십팔분에 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 도라와다

이대임을 다하고 도라온신용욱(愼鏞頊)씨는 아래와가치 이번길의 감회기픈회상담을말한다

대구에 도착하자 그곳인사의 성대한 환영에는 실로감격하엿습니다 특히그곳 학무당국의 호의에는 감사해 마지안습니다 륙천여명의 중소학생이 연병장에 나와서 환성을올리며 마저주신 기리잇지못할 감명기픈 일입니다 여러가지로 이번비행은 실로 제가비행을 시작한후 처음으로 당한 가장유쾌한 비행이엿습니다 운운

本社空輸機大邱到着光景
(上) 機上으로부터輸送新聞을解下
(中下) 歡迎群衆에게說明하는愼飛行士
(下右) 花東을바든愼飛行士

新婦禮飮食에 百餘名中毒

平北博川에又復變怪

【嶺美】지난이십일일 평북박천군 가산면 동문동(平北博川郡嘉山面東文洞) 김보문(金甫文)은 며누리를 보고 신부례 잔치음식을 동리사람과 논아 먹엇든바 그음식을 먹은 사람 백여명이 중독되여 그중십여명은 벌서 죽어 가산면 일대에는 대소동이라는바 모의사의 말에의하면 중독자중 구하지못할 사람이 다수라고 한다。근삼년동안 박천군내의 중독사건은 금번까지 삼사차나 잇섯다는바 금번은 더욱 혹한 상태라고한다

七名死亡 三名危篤

【新義州支局電話】이십일일 오후아홉시경에 평북박천군 가남면 가흥리(南博川郡嘉南面加興리)에서는 그동리 김도문(金道文)맛아들의 혼인잔채에 동리사람백여명이 참여하여 음식을 먹고도라갓는데 그중칠십여명이 중독이되여 이십삼일까지 일곱명은죽고 세명은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원인은 썩은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라 한다

綜合競技第三日

快晴스포츠日和 展開된白兵戰

青學·儆新을이겨 一般部에鐵道軍勝捷

금년도(今年度)운동씨ー슨의 도미(掉尾)를 화려히 장식할 조선체육회주최 제십일회 전조선 종합경기대회(綜合競技大會)의 제삼일은 역시 쾌청한 가을벗아래 점차 본격적 게임에 들어가 제이일의 중등축구 청학대경신(靑學對儆新)의 일몰(日沒)로 맛치지못한 연장전을 이날 경시부터 다시 계속하엿다 그리고 숭실대 재령명신(崇實對載寧明新)、양정대경신(養正對京貴)전등이 오후세시부터 열리엇스며 일반부 준준결승의 룡철(龍鐵)대서울전으로부터 개시하엿고 롱구중등부의 준준결승전인 중동대공민(中東對公民)전이 오후세시부터 전개될터이다 특히 금번대회 우선종목으로 편입한 유도(柔道)중학단체전의 중등대항전과 일반청룡시합전이 잇서 더욱 흥미를 도두고잇다

青學2 儆新1

【前1…0】【後0…1】

綜合競技大會第二日의 中學部第二回戰 儆新對 青年會學校戰은 一對一同點後 日沒로 因하야 中止되엿다함은 昨報한바와 갓거니와 其延長戰을 二十四日午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繼續熙昌氏 審判아래 猛擊戰을 行한바 第一次二十分延長에 兩軍得點업시 激烈한 白兵戰을 展開하야 第二次延長戰에도 兩軍서도 好機를 逸함뿐으로 得點업시 第三次延長에 들어가 后半六分에 靑學FW『트리블』로 儆新守備陣을 搖亂하야 LW失한것을 波田한것을 儆新FW의 발에 밧치어自己門에 쏘아들어 儆新軍不運의 敗北을하엿다 (所要時間一時間十分)

鐵道2 서울1

【前1…1】【後1…0】

綜合競技大會 第三日의 一般部準決勝 鐵道對서울戰은 二十四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金洪烈氏主審下에 鐵道先蹴으로 開始되엿는바 前半戰에 鐵道軍廿三分에LI猛襲에 一點을 先取한다음 서울軍廿六分에LI 雪辱의 奮戰이 奏効되여 貴軍한 一點을 同復하야 一對一同點으로 兩軍苦戰한끄테 마치다、後半戰에들어가 兩軍 白兵戰을 演出하야 戰勢混亂타가 廿六分에鐵道軍의RI重藝의一點을어더 二對一로鐵道軍勝捷하엿다

【서울】
福根甲泰植貞燦雲根龍詰
永以漢奎公奎根聖長鎰浹
崔吳鄭南韓崔金陣崔金尹
LWIF1RWLHCHRHLFRFGK
【鐵道】
在仁煥根古鎭亮淳圭慶
德善華敬仁學奧有應龍羽
崔金張李奧梁朴全金金成

大學、專門 卓球大會 廿七日 本社講堂

第十二回 全朝鮮大學、專門學校卓球大會는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 열리인바 參加校는 京城帝大、同豫科、大邱醫專、京城高商、齒科醫專、京城醫專、京城法專等의 七個校가參加하엿는데 團體戰과 個人戰(七十名)을 行할터인바 今年의 覇者校는 法學專門이라한다

마라손의孫君東京에

마라손選手孫基禎君(養正)은 十一月三日에열릴 第八回明治神宮大會마라손競技에 參加코저 二十五日午前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發程할터이라한다

朝鮮의代表藥 ロクミン

補血強壯新藥

醫大醫學博士의推奬

發賣元
總發賣·天一靈神丸本舖
天一藥房
京城府禮智洞一八九

絕對健康法

如何한病이던지 어떠한經過를… 人에게가장缺乏된榮養素가 무엇이냐!!는것을알때에는 其缺乏된成分을補給하야 疾病을速히恢復케할수잇다는것을누구나 다 시말할必要가업습니다

生殖器性神經衰弱으로苦痛하시는분이 其原因이 어데잇는것을醫師以上으로 잘아실것입니다

本『로구민』은自古로性的衰弱을感하시는분이시라 반다시服用하야 其卓効를엿게되는六味湯을新藥化하야 性機能을助長하는高價한『ホルモン』劑等을綜合하야配伍製劑한新藥이올시다

我朝鮮人習性의 가장適合한藥이오 또한永續性이 豊富할뿐아니라生殖器神經衰弱及早老에가장큰原因인性『ホルモン』缺乏症에榮養素이라服用次第로速速恢復케할수잇는藥이옵시다

適應症
神經衰弱 肺結核 老衰防止 倦怠感 盜汗 食慾不振 貧血

實價五〇瓦入 三圓 送料 三十四錢

長壽食器와 健強匙
愛用합시오!
千古秘傳의育兒良方 長壽食器 健強匙 今焉創製發賣합니다
肝氣념려가업고自然惜力이됩니다
說明書無代進呈
京城貞洞二二/一 長壽食器商會 振替京城二一〇八番
精巧優美
要先金 引換謝絕

十月 二十六日(土) 二十七日(日) 二十八日(月)
十一月 一日(金) 二日(土) 三日(祭)
釜山競馬
財團法人 釜山競馬俱樂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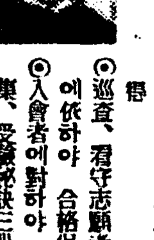
Columbia
不朽! 이傑作盤!!
아득한 千里길 (四〇六二二) 蔡奎燁

最新式組織打製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橋農機製作所 電話福島三四〇三番

自轉車材料原價奉仕
製造元より直接皆様へ 信用第一問屋
特典付商報進呈
帝都諸官廳納品 外國輸出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の六大通 直營元祖 自轉車製作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恩給
低利即時立替
京城師範學校北川邊 京城鍾路五ノ三二一番地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一三八〇番
京城南大門通一ノ一九五(黃金町四街)

▲目下巡査大增員計劃과 鮮人看守募集中
巡査 看守

⊙僅少한費用으로巡査、看守受驗資格을獲得
⊙巡査、看守志願者는 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
⊙入會者에對하야 試驗問題集、新常識集、受驗秘訣三冊을 無料進呈함
⊙有志人諸君은 今이絕好의 入會機、勿失好機入會하사 官界의登龍門에 올는소서
請求次第規則書即送
京城府永樂町二丁目 朝鮮警務學會 電話本局(2)三〇三〇番

醫學博士 金東益內科
電話光化門二七五三番

씽거ー中古재봉틀
十五號 百廿圓
十五號 百圓
(五個年間責任保證付)
재봉틀賃貸 一月五圓
⊙쓰던재봉틀高價買入
京城仁寺洞二百七 (仁寺洞入口)
楠재봉틀店
電話光三九六

애기들에게는

겨울이두려운시절 탈업시넘기자면
「이런점을주의하십시요」

(二) 城大醫學部小兒科研究室 李聖鳳

二、거처와공기

우리의 가옥제도는 비위생적입니다 특히 문화의 중심지인 경성이더합니다 여름보도 아시는바와가치 방들이 하도적으니까 아이보건상에 절대로 필요한일광이 들지못해서 컴컴하고 공기좋하는 구멍이 업서 방안공기는 불결하며 방안이 더워지면악취가 코를찌릅니다. 이런방에서 일기가 차지면 명운을닷고도그저 추워서 방장으로 둘너싸는사람도 잇스니 그방안공기는엇더할것입닛가 방의방향은 남향이좃습니다 우리의 온돌(溫突)도 방안의온도와 간습(乾濕)을 적당하게 조절할수잇스면 결코 비위생적은 안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연구에 맛길것이나 우선공기가간조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특히밤에는 물수건을 서너개쯤거러노흔지 그러치안흐면 통풍구를 방안에 두는것이 좃습니다 우에말한것이 유아의방으로는미닷 살창이나 현하우리가옥제도로는 바랄수 업는고로 엇던 방이던지일낮이 잘드는방을 대하시것입니다 두말할것업시 비위생적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거처하는방은 이와반대로 특히유아의방은 공기가 잘통하고 밝고 일광이잘들고 습기가 업는 방이라야됩니다 이런방에서거처하면서 주의해야할것은 청결입니다 따라서 늘소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자주가라넛토록 주의하서야됩니다 청결의 이미에서 아이의방은 장식이필요치안으며 될수잇는대로 간단이설비하는것이 조흐며 그리고 방안 긔구는 모난것은 메하고 둥근것을 사용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공기좋하는 구멍이업스면 남향으로 벽에 구멍을 뚤녀두어서 불통과소출을 식혀서 일기가 아모리차든대로 하로에세번식(아츰、낫、저녁)은 오 ― 분을 다 ― 여러노코 바갓공기를 갈어넛는것이 좃습니다. 일광은 보건에 직접필요하지만 간접으로도 필요합니다 다시말하면방안에일광을 쏘이면 병균이 번식하지못하고 죽는때문에 아못조록 방안에는 볏흘 쏘이게하는것이좃습니다 우에도말하엿거니와 방향상 볏흘 쏘이지못하는누구니까 그비용으로 공기좋하는구멍이더지한두개의 회운을 방안에준비해두는것이 유익할것입니다 다 화로를 요강가든것은 방에 두지안케주의하시는것이좃습니다

家庭

김장만 못지안흔 겨울사리 장작준비
잔것보다 굵은것이 낫고 푼거리보다 바리가나어

세계에서도 례가드문 온돌로 되여잇슨 우리가옥제도에잇서서는 겨울이짓터갈사록 연료의준비에대해서 특히 준비하지아니하면안되겟습니다。그런데 우리네의

일반가정에서 쓰는 연료로는 무연탄이니 구공탄이니하는 석탄도 쓰기는하는모양이나 아모래도 장작을 제일 만히쓰는모양입니다。그러면 장작을사는데에는 엇더한 장작이제일조흐며 엇더한때에 엇더케사는것이 조흔가를 말슴해 드리겟습니다。

장작에는 소나무장작과 참나무 장작 두가지가잇는데 참나무 장작은 대개 우리네가정에서는 잘쓰지안코 소나무장작을 제일 만히쓴다고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리유도잇겟지마는 참나무 장작에 비해서 소나무장작이 나흔것은 첫재 화력이 더 세고 또한 불이붓기 쉬운까닭이라고 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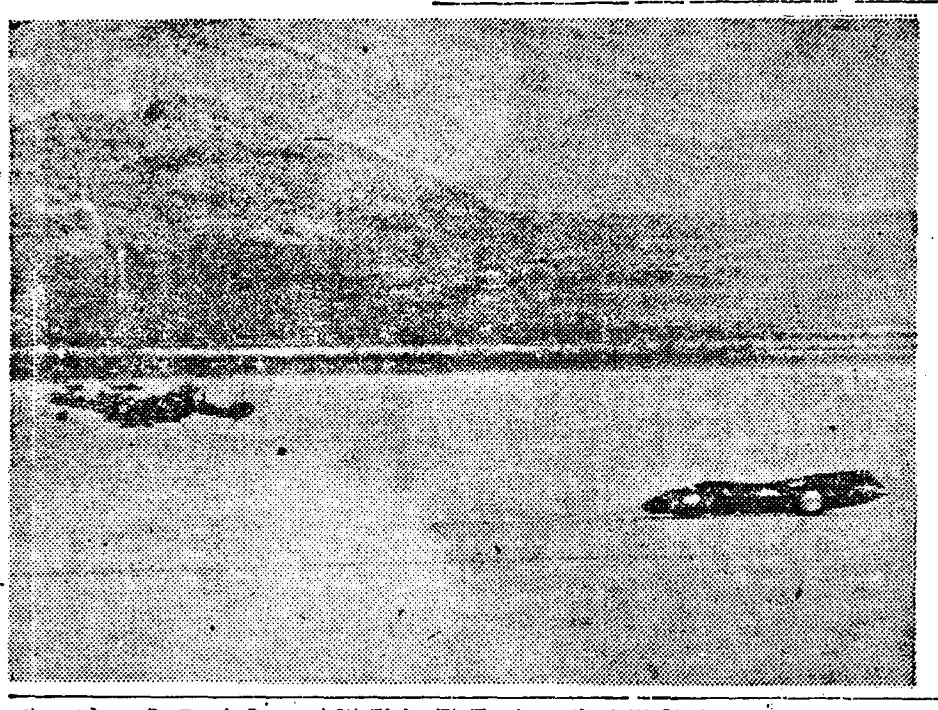
그리고 다갓흔 소나무 장작에서도 통나무 **장작이라고** 해서 아주굵은나무장작과 가느다란 장작이 잇는데 장작을살때는 될수잇는대로 굵은장작을 골라사서 그것을 집에서 다시 가늘게 패가지고 때기조케해서 쓰는것이 아모리해도 리익이된다고합니다 장작갑슨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빗싸젓다고하나 그다지 큰차이는 업는모양인데 대개 신탄상들이 시골을가서 사가지고온 장작이 여긔까지 오는데에 드는비용까지를 전부처서 한『도라구』에 이십원가량먹힌다고하니 대개 우리가정에서 쓰는것은 바리나무라고해서 소 한『구루마』마차로 따지는만큼 한『도라구』가 마차나 솔구루마로처서

얼마되는 지는 잘날수업스나 대개 이러한 가격으로 처본다면 알수잇슬듯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때는 장작이란 우리네 생활에 잇서서는 김장과 가튼것임으로 대개 이때에 준비를 해두는것이지마는 사실에잇서서 십중이된뒤에 사는것보담은 지금쯤 미리 사두는것이 갑도 싸다고합니다。그러니 될수잇는대로는 일직이사서 두는것이 갑도 쌀뿐아니라 과동지책이 다되면 마음도 든든하게 노히는것이만큼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조켓습니다。

무슨 물건이던지 푼푼어치로 조금식 사는것 보담은 한목에 만히사는것이 결국은 경제가되는것이지마는 장작도 푼거리나무로 멧단식사서 쓰는것보담은 한목에

바리나무로 사는것이 절신더경제가된다고합니다。그러나 한목에 멧구루마식 드려사자면 일시에 넉넉하지못한 살림에는 그야말로『알고도속는다』는격으로 번연이 경제가 될줄을알면서도 한목에 사드리기는 어렵겟지마는 될수잇는대로 이러한 생활필수품은 경제만을 생각지안코서라도 미리 넉넉하게 준비해두는것이 조흔것이라도 다른것을 뒤으로 좀 미루드래도 한목에 만히사서 쓰는것이 조흘듯합니다。그리고 장작을살때 특히주의할것은 잘 마른것과 덜마른것이잇는데 덜마른것은 불도잘피지 안흘뿐만아니라 혹 근수로 달어파는데가면 연이 근수만 만히나가서 아주 손해될때가 만히잇습니다。그러니까 살때 잘보아서 아주 잘마른것을 골나사지아니하면 안됩니다。



작년에끼든 가족장갑 어더케두섯습니까
—이러케간수해야됩니다—

제철이 아닌때에 쓰지안코 너허둔 가죽장갑은 곰팡이가 갓득핍니다 더욱이 우리가자주끼는것은 심합니다 이럴때는 장갑을뒤집어서 그늘에말리는데 철사사슬을 손모양갓치만드러가지고 끼워서는 방안에 거러둡니다 이삼일이 지낸후 떼내는데 것가죽이 바짝바짝한것은 휘발유로 잘닥거서 다시처음과가치 뒤집어가지고 한입주일간더거러두어야 곰팡도 업서지고 아주말짱해집니다

樂部後援演奏

出演樂士 金永煥、玄濟明、洪蘭坡 蔡善葉、朴景浩、京保合唱隊

第三回秋期音樂大會

一時 十一月二日(土)下午七時半

一場所 朝鮮日報社大講堂

主催 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童話 토끼나라 【下】
車斌均

그런데、때맛츰지나가든 호랑이가 이소문을듯고 이튿날아츰、어슬넝어슬넝토끼나라로 차저들어와『내가 너이들의 왕이되면 엇절까? 나는힘도세고 용맹할뿐아니라 민첩하여 너허들의 왕될자격이잇다。또보라! 내이마에는왕자가 삭이여잇지안흔가? 이것은 내가왕될표다』하구、산이울리울듯한큰소리로 캥첫습니다。여 ― 러토끼들은 호랑이의왜ㅅ불가튼눈과、으르룽대는 호통에그만 질겁이날뿐아니라、호랑이말이 그럴듯하야、드디여 호랑이를임금님으로 모시엿습니다。

토끼나라왕이된 호랑이는 멧칠이 못되여 자기본성을 낫타내이엿습니다。백성들의살림사리는 조금도 돌보지안코、도리혀그들을잡어먹기시작하엿습니다。

『우리아들이 그만어제놀너나갓다가왕의밥이되고 말엇소그료』

『우리어머니도 그랫다우』『우리옵빠도그랫다우』이런 눈물석긴 소리가호랑이가 왕이된지 이구달도 못되여 토끼나라 이구석저구석에서새여나왓습니다。

토끼들의 원함이 놉하가두록 새、호랑이에 잔인한 행동은더욱더 심하여갓습니다。그러나 약한토끼들로서는 어찌할도리가 업섯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만히알기로유명한 늙은토끼 한마리가 『산중왕(山中王)인 사자님을 청하여다 호랑이를 내여쫏차』구말하여 여 ― 러토끼들의 찬성을 어더가지고 곳 사자를 모시여왓습니다。

사자는 아주 공순이 음성을 낫추어가지고

『여러동무여! 나는 약한사람들의 동무가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나는 다만 여러분에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충실한종이되겟나이다』하고 토끼들에게인사를한후 단번에 호랑이를쫏차버리엿습니다。

토끼들은 호랑이를 쫏차준 사자가 넘우도감사할뿐아니라 약한우리들을위하여 충실한 종이되겟다는말에 그만 감격하야눈물까지 흘리엿습니다。그리고사자에게 토끼나라임금님이 되여주기를 청하엿습니다。

사자는 처음에는 구지사양타가『그러면 여러분동무의 간곡한청을 저바릴수업스니 여러분에 행복을 위하여 이한몸을밧치겟소!』하고 토끼들의 청을들어주엇습니다。

이사자대통령은 도적놈을 엄벌하고、나무여름을 잇는대로 모아서 똑가티 노나주어、싸우지안케하는등 여러가지로 토끼들을위하여 만흔공적을지엿습니다。

그러나 오래지안이사자도 잔인하고 교활한본성을 낫타내게되엿습니다。사자대통령은 호랑이와가티 단번에토끼들을 해치지안코 것조로는 토끼들을 위하는체하면서 스루스루 리면에서 약하고 세력업는놈을 끌나잡어먹기시작하엿습니다。그래서 토끼들도 처음에는몰으고 잇섯스나 날이가는동안 이사실도자연알게되엿습니다。그러나 별재주가 업섯습니다。

더욱이 어떤토끼들은『우리를 위하여 호랑이를 쫏차준사자님이 그럴리업다』하구 사자대통령을 두둔하는말도잇서서 토끼들사이에는 때때로갈리우게 되엿습니다

사자는 자기흉을보는놈은 기여코 잡어먹고 자기를 칭찬하는놈은 후이대접함으로、나종에는 누구하나 사자를흉보지못하고 저벌벌떨분이엿습니다。

토끼들은 생각다못해 도망을가기시작하엿습니다 달밝은날밤 사자의눈을 피하여 숨을헤치가면서 정든나라를떠나가는것 입니다。(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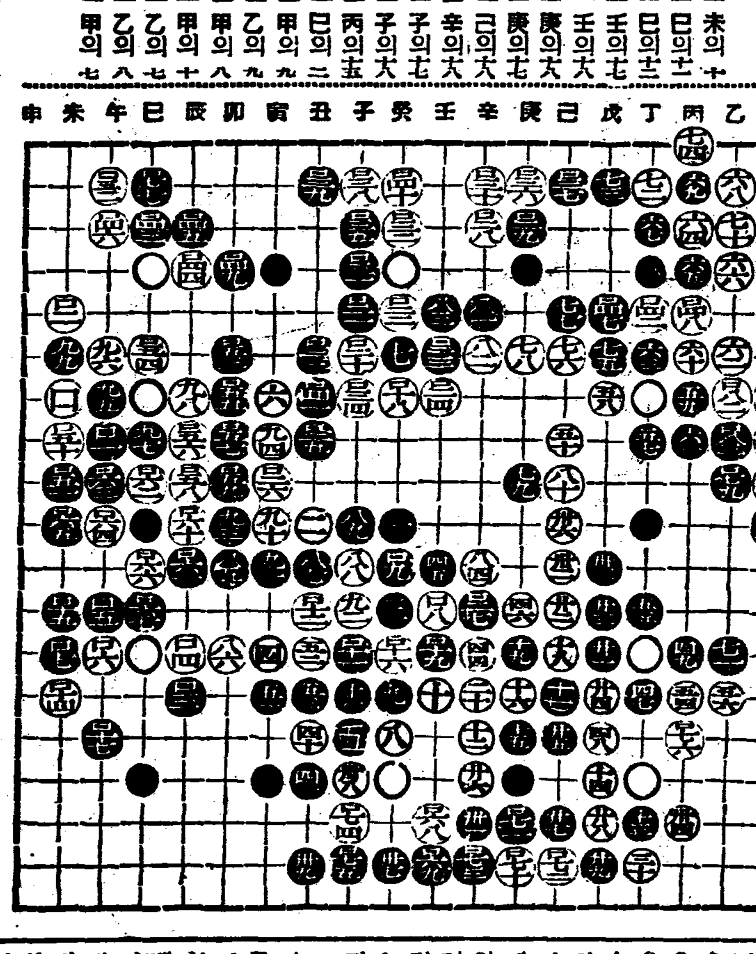
曆 十月廿五日(金) 陰九月丙戌(小)廿八日 甲戌·火·牛·建 ●霜降九日(舊月十二日)

번개처럼 빠른자동차

영국의『스피ー드』왕『말콤·캠푸벨』씨의 경주용 자동차『불류버ー드』호(靑鳥號)는 지난구월 미국에서 한시간에 삼백마일이란 놀라운 기록을 지엇습니다 삼백마일이라면 철리길 — 서울서 부산가기보다도 조곰더먼 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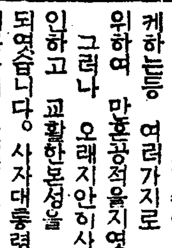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1—

白 丁奎春 / 黑先 權五震 當局秀才



【●一六五】未의十 【○一六六】巳의十一 【●一六七】巳의十二 【○一六八】壬의十七 【●一六九】壬의十六 【○一七〇】庚의十六 【●一七一】庚의十七 【○一七二】己의十六 【●一七三】辛의十六 【○一七四】子의十七 【●一七五】子의十六 【○一七六】丙의十五 【●一七七】巳의二 【○一七八】甲의九 【●一七九】乙의九 【○一八〇】甲의八 【●一八一】甲의十 【○一八二】乙의七 【●一八三】乙의八 【○一八四】甲의七

◆蔡極文氏評 黑白의 分隊列陣이 既已整備하니 最要는 末端裝飾이다 白이 抽暇를 어더 己의 十八로 黑一點을 呑取하고 甲의 九로 飛點을 睡하야 銖錙小利와 尺寸幾功을 細細分析하니 神辯異算은 幻化於棋中仙方이로다 黑이 巳의 二보담 乙의 七로 擠함이 斧爾일가하노라



二十四日 (木)

◇午後六時 明笛獨奏 鄭德潤 / 伴奏 金吉洪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홀몬과長生 尹日善
◇同七時三〇分 住宅改良座談會 朴吉龍 金東成 鄭求忠 兪珐 卿 尹聖相
◇同八時 라듸오・도라마 生活 一幕 李佐雄作 放送劇硏究會
◇同八時四〇分 歌謠 金福姬 / 伴奏 高龍善 …
◇同九時一〇分 漢詩古談 花의말(二) 中樞院

二十五日 (金)

◇午後零時五分 (大)吹奏樂 ―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 大阪市音樂隊 指揮 林直
◇同三時一五分 常識講座 朱鍾勳
◇同六時 音樂이야기 樂聖베ー토ー벤 趙光錫
◇同六時二五分 講話 保健과建築 朴東鎭
◇同七時三〇分 講話 在滿朝鮮人의農業經濟와生活狀態 鮮于全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바다령 慎淑 /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쟈즈音樂 (레코ー드演奏)(레드니콜스管絃團)
◇同九時 놀양外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二十六日 (土)

◇午後〇時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카미카行進曲(스미스作曲) 二、캘로로다의 달빗 三、카메하메하 왈스(킹作曲) 四、우쿠레레 무…(콘라드作曲) 五、그리운 하와이…(스미스作曲) 六、하와이의노래 七、하와이섬왈스…(쿠센자作曲) 第一키타 金聖燮 第二키타 金俊英
◇同一時三〇分 (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 ― 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 ―
◇同四時 아式蹴球試合實況 朝鮮體育會主催第十六回 綜合競技大會 蹴球專門部決勝戰 延禧專門 對普成專門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合唱 中央保育學校生徒 指揮 洪盛裕
◇同六時二五分 講話 營養과經濟 醫學博士 李錫甲
◇同七時三〇分 講話 在滿朝鮮人의農家經濟와生活狀態 (二) 鮮于全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느진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
◇同八時三〇分 …
◇同九時 …

聖畫 【12】
李孝石 作 / 安夕影 畫

밤은 괴로웟다。이웃방의유례가 의식의전부를 차지하야 좀체 잠이들지안햇다。그러나 생활의설계를실천함이 유례를그곳까지이끈목적임을 반성하고 이튼날아츰은 일숙이일어나 그의소원인 바다로떠낫다。

차로 한시간이걸녓다。누구나가 다하는것가티 해수욕복을납고 모래우에 뒹굴기도 멋적어 궁벽한곳을 차저 둥대를 구경하기로 하얏다 그것은 확실히 신긔한생각이엿다 둥대에는 아름다운시가잇스려니 짐작된까닭이다。유례는 집거운그대에 차속에서 유쾌하게회화하얏다。

몬지와 해어냄새의 항구를지나 고개를넘은 노픈산기슭에등대가잇다。파란산 푸른바다의 지튼배경속에뜬하야얀집들을는호수우에 뿌려진조개껍질이다。일면으로깔닌 조약돌 우유빗쾡키 조촐한 화단 ― 모다가 조희우에채색된 수채화의인상이지 흙덩이우에선 현실의풍경은아니다。바다로 깍가나린 산등에솟은 등대는 꿈속의탑。속세를떠난 그 아름다운그림속에서는 사람의거동조차 유창하고 넉넉하다。우리의청을 승낙하고 등대안으로 길잡이도하는 젊은등직간수의거룸은 게거룸가티 느렷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러케아름다운곳이 남어잇섯든가 하는 감격을、못니지 안켓다는 면밀한 주의로길면서 한조각의 풍경도 놋치지 안켓다는 석구석을 살피며 간수의 뒤를따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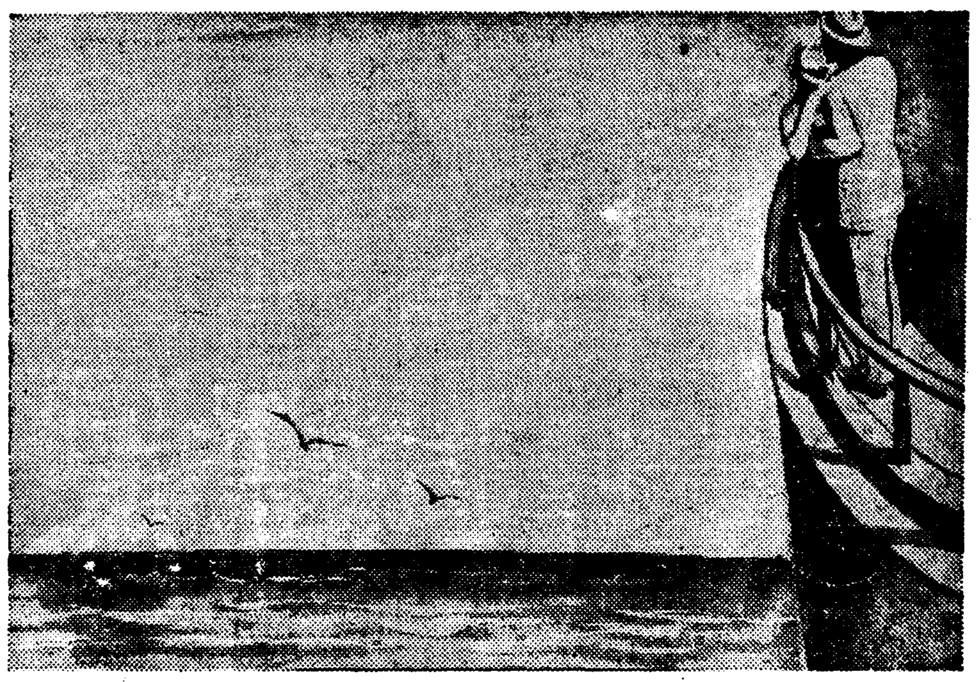
일등성십과도가튼 등대의 탑안은 어둠컴컴하고 탑꼭대기등불까지에는 두충으로 나노인 긴층대가섯다。이십해리를 빗취이는 사만촉광의 위대한 백열등 ― 그것은 땅우의 태양이다。그 태양으로 오르는 층대는 마치 천당으로 통하는길과도가티 좁고 험하야 겨우한사람만을 통하게 되엿다。길은 외통이요 오를사람은둘이다。층대어구에서서(나는 유례에게)길을사양하얏다。

유례는 서슴지아니하고 앞장을서서 층대에 발을걸엇다。나는 무심히 뒤미처 그의뒤를따랏다。올나보니 둥대는 사다리가티 꼿고 놉하 유례와나는 거의 일직선우에서게되엿다。다시말하면 유례는 나의로맨틱을 타고 두억게우에올나선셈과도 가럿다 유례의발은 바로 나의코아페잇고 란간을붓즌 두팔에는 치마자락이 치렁거리는지경이엿다。충대의철판이 뎌에부드침으로 나는 하는수업시 얼골을 위로처들수박게 업섯다。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무심중의행사엿스나 나는 다시 급스러운 얼골을 나려트렷다。그러다가 철판에 더올오되게 젓고 도로 떠밧들리울수밧게는업섯다。그대로 탑꼭대기에까지올나가 찬란하게타는프리즘의백열등은 본체만체하고 탑눈을밧차고나왓슬때 나는 허둥거리는몸을 위태스럽게 철란간에 부드처버렷다。수십길되는 란간아래는 물감덩어리를 픔어노은듯이 도지는 푸른바다다。그러나 나의몸이떨니고 다리가허전거리는것은 그 바다가무서워서가아니오 충대에서 바든 무서운감동으로 인함이엿다。

유례의몸이 떨님은 밝아래가 무시무시한 까닭일까。란간에 의지한 몸을부르르떨드니 별안간 나의겨레솟네 전신을 던저왓다。

품안에 날어든새를 붓드는셈으로 나는 유례를 두팔에안헛다。몸이 허공에뜬것가티 떨닌다。유례의얼골이 눈이 입이 나의얼굴미테 가깝다。번개가티 떠오르는 유례의이마를 스첫다 바다가고요하고 한울이놉다。그대로한복이되여 란간을 뛰여넘어 단숨에 바다속으로 ― 그것이 단하나의 길이언만 오라간만에 유례의 몸을 안은 그자리에서 나의 머리속은 순간 끼진 찌룽장가리 부엿케 비엇슬뿐이엿다。

오라간만에 ― 유례의 몸을 ― 오라간만에 ― 끼진 찌룽장가리 비엿든 머리속은 문득 회해지며 다시 그림이 현득되는 찌룽장가리 지난기억의 한폭이빗처어지기 시작하얏다。



新日本의傑作品
찐은싱가ー・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登錄商標

國産 蛇の目ミシ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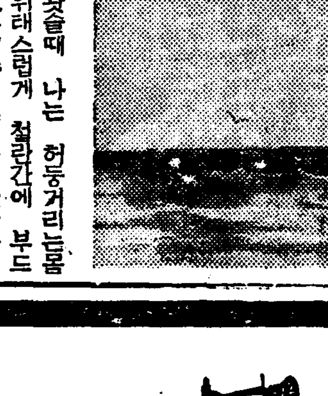
躍進日本!의覇者

이數 來歷誇한 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品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얏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훨씬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 됨으로 只今은全世界에對하야『차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한피치를놉히고 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一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 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 募集하고잇사오니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 萬稔商會代理店係로 申込하시면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忠州邑內 崔寅煥商店 / 信川邑內 金錫謙商店 / 沙里院邑內 吳得龍商店 / 臨川驛前 李一枝商店 / 延安邑內 延安裁縫機械商店 / 廣州郡廿山 尹鍾源商店 / 恩山邑內 鮮興商店 / 平北軍館 李萬鉉商店 / 海州邑內 福鎭商店 / 平北龍岩浦 高尙欽商店 / 靑陽邑內 尹斗煥商店 / 安岳邑內 金秉律商店 / 南原邑內 朴琪永商店 / 鎭南浦 歐米裁縫機商店 / 洪城邑內 朴鍾乙商店 / 新義州 金明熙商店 / 驪州邑內 朴鎔奎商店 / 江華郡溫水 金津裁縫機械商會 / 昌城邑內 高必善商店 / 扶餘邑內 大昌洋服店 / 坡州驛前 李俊珏商店 / 平壤 朴達文商店 / 水原驛前 各國ミシン商會 / 金泉邑內 河相奎商店 / 尙州邑內 朴容鎬商店 / 都里邑內 朴里ミシン商店 / 晋州邑內 李世豐商會

東京・大阪 國産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全鮮代理店 萬稔商會京城支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②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昭和町 / 支社 大阪市北區絹笠町大江ビル / 各地支店 橫濱、神戸、京都、靑森、甲府其他

浪花館 二十四日封切 … 上映 一、眼と耳の …ニュース 第二百三十一號 二、右太プロ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脚色 … 主演 … 國定忠次 … 三、コロムビア特作漫畫 ▲戀日記 四、第一映畫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脚色島佐四郎 監督 主演 鈴木傳明 中野英治 田一郎 ▲名物三人男 … 十月二十二日早터三日間特別興行 東西洋二大巨篇一時當當上映 …

第一劇場 新興키네마超特作 密林의王者 中野カホル 主演 … 라마온트社超特作 現代劇 昭和人生案內 性格名優、中野英治主演 … 現代的人生그것은 … 制服의處女 …

朝鮮劇場 仁寺洞 電話光三九 … 松竹키네마超特作 … 春は御婦人から … 朝霧男의唄 … 一女三夫 … 殺人魔 …

中央館 水標町 電話本局 … 僞伯爵 … 十六夜日記 … ながれ …

一學藝一「커트」는 故貫齋李道榮氏畫「器皿折枝」

第十四回를마친 協展印象記

張小翰

協展이 今年에 이르러 第十四回, 滿六에 조흔 시절(黃金時代라고할까)이 잇섯다고 할지라도 近者에는 『同情』으로 볼 協展이지 『期待』로서 볼 協展이 못된다 그까닭은 協展이 鮮展과 마주서서 버티고 잇는

民間唯一의 機關이란 거기에다 極度의 虛脫狀態에잇는 協會를 떠메고 나려오는 幹部들의 誠意에 눈물지가때문이다 決코 험잡는 말도 아니오 끄집어 뜻자는 말이 아니라 美術을 한다고 自處하는 사람과 美術에 理解를 가젓다는 사람이 본다면 기다리든 이번 協展도 『皮肉이 맛부튼 어버이의像』가래서 구슬픈 생각이 압서깃이다。

協展이 왜 잘 안되느냐? 『보잘것업는 거기에 왜 出品을 하겟느냐』 그런것도 아니다。『幹部들의 活動이 不足하다』 單純히 그러케 速斷할 일도 아니니。『會員과 一般畵家의 誠意가 不足하다』 조혀

안그런바도 아니나 이것이 主要原因은 못 된다。그러나 協展의 不振原因을 여기에서 장황이 캘 必要도 업거니와 캔대자 나올소리는 궁상스런 소리뿐이요 우리가 우리를 怨望하는 넉두리에 그치고 말것이다。

第十四回 協展의 印象──보는 者는 우에서와가튼 心境으로 아니볼수업고 이 心境으로 본다면 大體의 作品印象은 조케말해서 심통한것도 업고 낫부게 말해서 소위 구역질나는것도업다 多少 이름가진 一般作家以外에 新人도 別로 업고 會員(大槪前者들을 網羅햇지만)들이래야

義務感에서 몃點式 出品햇슬뿐、常者들에게 못는대자 自信잇는 作品이라고 내세울 理도 업슬것이다 그러고보니 지난回에 못보든作品陳列그것뿐이라 無味乾燥해서 한편구석에잇는 貫齋의 遺作들이 업섯든들 이번協展에서 取할 感興이란 손톱만치도 업섯슬것이다 그럼으로어느作品을 드려 잘되고 안되것을 말할 興味도 업거니와 新家가잇서 新家쓰대자 力量잇는作家들이 自己들의 力量을 發揮아니햇고(못햇다는말과달튼다)또 이會의 情勢를 理解한다면 못이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말것이다 그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운이 안나서니。

◇

그럼으로 筆者 亦是을 쓰고저 내던것이아니지만 印象을말한다고 하드라도 살작 『수박것할끼』에

지나지못할 것을 미리諒解코 容恕를 비는바이다

『書』에 對해서는 專假눈이어둡고, 四君子에 對해서는 所謂 『꺼리』가업서 지나친다

◇

東洋畵部에드러서 金基昶氏의 『琴』은 애초에 무엇을 그리겟다는 作定이업시 始作햇다가完成한作品인듯하다 弄이 아니라 『美人』이란題號를 부첫드면 차라리 속시원치 안혓슬까? 主題의玄琴과 美人과는 아모連絡이업서보이는것이 섭섭하며 細寫에 疲困해서 『데상』에 不實한곳이 잇서보인다─무릅이거니

허리가기러 보이고 그러타고 뒤로잡혼팔은 짧은편이니 이런點는 東洋畵의 通弊인듯십다 張遇聖氏『秋寂』을 보고 東洋畵家의 常識이 疑心스럽다 特히 花鳥畵家에 對하야 動物學者들이 마구 反駁하기는 近來 日本에서생긴일이지만 그例를드러 장황이 말할것은업소되 원숭이를 落葉에매서 그린藝術感興도 이상하려니와 원숭이는 朝鮮과因緣이업는動物、며구나日本産원숭이外에는 거이다 熱帶産인데 落葉을보는 원숭이라면 日本産바게업슬것이다 그러타고 보면『秋寂』의 원숭이는 日本猿이아니니

動物常識은 그만두고라도 昌慶苑十경이라도햇든들 그런원숭이는 決코되지 안혓슬것갓다 이作品이元來 조다글다를論할거리가 못되지만 平凡곳긴바가잇서 暫時여기에例로드럿슬뿐。

李碩鎬氏『閒寂』 儷實의舊態에서 버서나려는努力이잇서보이나 그대문에 지나친誇張(?)이것은 大槪無自信의 所産)이作品을 잡친듯십다 例는長松가튼데서。

李用雨氏의『驟雨』는 李氏의性格이어던지 모르지만 發勇으로그린듯십고 酒氣로그린듯십다 藝術家로 이런氣品는조흐나 十分의自信과

力量이업시 는아니할짓이요 人格을 의심받기쉬운것이다

張墨風氏의『木馬』 서투른 日本의日本畵家가그린 朝鮮風俗畵갓다。張氏가 捕捉하랴든 朝鮮色과生活이 어데드러낫는가 張氏여다시한번보라

高羲東氏『秋風。』老大家로自已藝術에對하야 큰苦悶이잇서보이는분은 오즉高氏뿐인것갓다。洋畵에서 東洋畵로 轉籍한그것도그려키니와 氏의東洋畵는 洋畵에對한 未練이잇서 風景가튼데보면 언제나 洋氣의 『바이부러이숀』이잇다 그럼으로누리는氏를볼때 朝鮮洋畵界의 元老란尊稱보다도

藝術家로서 의그苦悶에對하야 眼엽시 推仰하고 부려워하는바이다 이번『秋風』은 東洋畵라기보다 洋畵가 三分인듯한데 氏에잇서서는 駄作에屬할것이다

崔雨錫氏『魚戲』 氏의最近傾向을 보면 洋畵를 決코우숩게보지안는愉快한데가잇다 『魚戲』를보니 더한層 이點을 늣기게되는데이作品은 조흔作品이라기보다 『시끼시』에자그마케 그려冊床머리에부치고십흔 作品이다 엇더케하면잘 그리고 깨끗하게그리것느냐 하지말고

어더케하면 좀더藝術的으로向上하리까하는 생각을가지를 氏에게忠告하고십다

黃宗河氏『月虎』 이런호랑이는 斑種이아니고는 몰수업슬것이니『하-겐베크』動物園主人이본다면 興行價値를노

李濟昶氏의『庭園一隅』를 보니 氏를對하는것가티

氣力이업서 조을고잇는것갓다

孔鎭衡氏의『回想』張勃氏의『S孃』을 兩者의力量이 水準에達햇고 張錫豹氏의 諸作과金東赫氏『靜物』을보니 將來에期待를할수잇슬뿐더러 그들의感覺이 無限부

또 [illegible] 金重鉉氏의 「어떤이」 [illegible]가신는 구두가아니라면 그야 이나이에 그런어른구두가 잇슬 [illegible] 엇재든 勞作이아니고 材料가아까운 習作으로 보여진다 [illegible]氏『初春』 別로두렷이 드러난作品은못된다

才氣잇는作 品으로 [illegible]과 [illegible]가잇서 [illegible]생각이아마라 林[illegible]氏의『[illegible]』 [illegible]氏의 [illegible]다 未熟하기짝이업다 더말하면섭섭하겟스니 [illegible]만 李[illegible]氏『[illegible]林』[illegible] 可惜하다 [illegible]、아모리好意를가지고보랴볼수업는作品 『[illegible]』이어다고 하는 門外漢이 볼찌라도 [illegible] 러이니 氏여 猛省하고、나를 가라부칠 [illegible](?)은 업는가?

◇

쓰다보니 紙面이 빽빽하야 洋畵는 약념格으로 치우기로하자 어려니

저러니해도 李承萬氏『風景』이 가장빗난다。金容俊氏『海岸風景』은 酒肯로친다면 참잘한肉體와갓다。

、李馬銅氏도 小品스켓취가만혼데 力量이 薄弱한듯하야 어룡어룽한데가만라 力量이잇고 날리는것과 업고날리는것은 아모리든가지가 비젓하다 하지라도 손흥만한데서라도 드러나는데가달라

朴廣鎭氏의『日暮』는 實感이적고、런쥐하라고 노리구석이 보이지안는다。이에比하면 [illegible] 小品이나 오히려드려가는데가잇서 보인다

◇

畫이아니라 印象이라고 혀지만 말하고보니 새빨새가 多分하마라 [illegible]도아니요 評論도아니니 심앙스사람의 [illegible]로알고 놀려보아주기를 바라며。이번에 빠진 作品이 [illegible]되다」해서그런것은 아니니 誤解하기를바라다。

金振宇氏筆「詩窓聽雨」

張勃氏作「S孃」

張錫豹氏作「靜物」

白潤文氏筆「威振八荒」

第十四回協展 陳列作品目錄

書

命題	會員非會員	氏名
언문	非會員	金文顯
勸學歌	同	趙顯達
雙鵲銘	同	林承厦
楷書	同	林承高
七言古詩	會員	李碩鎬
隷	會員	吳[illegible]陽
飛千仭	非會員	李炳宇
四時讀書樂	會員	姜信文
隷聯壹對	非	李炳宇
隷	同	宋致憲
龍潛鳳擧	會員	孫在馨
墨池心境	同	吳世昌
隷書、行書	非會員	金 洽
篆書	會員	孫在馨
瀟灑之樂	同	同
行書	同	吳世昌
古文對聯	同	安鍾元
行書	同	同
隷書	同	同

東洋畫

命題	會員非會員	氏名
詩窓聽雨 五百間淸風	會員	金振宇
石蘭	同	趙東旭
蘭壹對	非會員	元錦紅
墨竹	同	金熙舜
石菊	同	同
蘭	會員	吳一英
竹	同	同
雨竹	非會員	李龍吉
琴	會員	金基昶
秋寂	同	張遇聖
瀑布	同	沈貞燮
秋日	同	金基昶
閒寂	同	李碩鎬
唐美人	非會員	秦世斌
驟雨幽篁	會員	李用雨
木馬	同	張雲鳳
薔薇	同	曹龍承
雪景	會員	朴勝武
秋景	非會員	白雅瑾
秋粧	同	曹龍承
柘榴	會員	金基昶
滴翠	非會員	鄭鍾汝
秋江歸漁	同	李寅玉
秋風	會員	高羲東
樵逐	非會員	裵濂
魚戲	會員	崔禹錫
疊巒松山鳥飛	會員	李用雨
春杵彈花(一對)	同	崔禹錫
朝顔花	非會員	鄭雲坡
曉	同	鄭用燁
月虎	同	黃宗河
어린이	會員	金重鉉
迎春	同	盧壽鉉
威振八荒	同	白潤文
田家春色	同	張錫豹
蘂林	同	李象範
白雲紅樹	同	吳一英
看坐楓林	同	池雲影
柳蔭讀書	同	鄭雲坡
天然色相	同	高羲東
初夜陽賞	非會員	朴米鍾
對頭理裝	同	鄭道和
深林幽居	同	趙南宗
門바	會員	張雲鳳
秋景	非會員	李順行
城跡	同	朴勝武
雨後	同	朴元壽

西洋畫

命題	會員非會員	氏名
仁川支那町	非會員	李觀熙
崇三洞風景	會員	都相鳳
花	同	都相鳳
裸女	非會員	洪祐伯
錦華院風景	會員	都相鳳
安東縣河岸	非會員	李觀熙
安東縣風景	同	李觀熙
柘榴	同	洪祐伯
友	同	洪得順
牧丹	會員	朴廣鎭
日暮	同	同
庭園의一隅	同	李濟昶
海金剛	同	同
女人臥像	非會員	林水龍
海金剛	會員	金重鉉
立石里風景	同	同
가을	同	同
晩秋	同	朴廣鎭
同開藻	同	孔鎭衡
風景	非會員	洪迎村
自像	會員	張錫豹
海景	同	同
[illegible]	非會員	洪祐伯
[illegible]者	同	朴振明
釋王寺	會員	朴錫豹
柘榴	同	同
[illegible]井里	同	同
風景	非會員	李東[illegible]
風景	會員	李承萬
S孃	同	張勃
初秋	同	尹喜淳
雨[illegible]	同	同
中之島公園	非會員	洪祐伯
自畫像	同	嚴道晩
바다	會員	金瑢俊
海邊	同	同
肖像	同	李馬銅
裸婦	同	同
靜物	同	孔鎭衡
午後風景	非會員	洪祐伯
靜物	同	林炳顯
花	同	李東勳
花	同	韓弘勳
風景	同	許南[illegible]
郊外風景	同	金東赫
獸像	同	林水龍
郊外風景	非會員	李丙吉
風景	同	韓弘勳
靜物	同	金東赫
早春小景	同	孫日鉉
夏景	同	宋政勳
가을	同	宋政勳
생가	同	張 [illegible]
立像	同	李東鉉

貫齋先生遺墨

命題	所藏者氏名
蘇山無盡	李鏞珊
墨蘭	李漢福
器皿齊玩	吳世昌
金佛獻桃	李鏞珊
桃源逕圖	朴榮喆
維摩詰像	吳世昌
柳岸美人圖	李漢福
器皿屛	具章會
志在擎天	閔衡植
器皿	曹楨煥
雙鶴圖	李鏞珊
南飛曲圖	吳世昌
器皿	李鏞珊
隷書	全鎣弼
四時淸香	全鎣弼

一協展小史一

協展은 今年으로서 벌서 第十四回를 맛는만큼 相當한 歷史를가지것인데 그일홈이 말하는바와가티 協展이란 곳書畫協會展覽會란 말이다。그럼으로協展이라는것을 알기위해서는、먼저書畫協會라는것을 알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그러나 書畫協會史를 撰述하자면 相當한 準備와 材料가 잇서야 할것임으로 이글의 目的은 協展小史에그치엿스나 다만 書畫協會가 언제組織되엿스며 協展은 언제부터 始作되엿든가를 記述하는데 그칠밧게업는것이다。

書畫協會가 처음으로 組織되기는 지금부터 十八年前 即、一九一八에 當時 우리 書畫의 大家들이든 趙錫晋 李道榮 安中植 吳世昌 高羲東 李漢福 金敦熙等 諸氏의 發起로서 多數한 書畫家를 網羅하여組織으로 設立하야 서로 同人的연구와 技術上 硏鑽에 精益해가면서잇다가 創立한지 三年째되는 一九二一年에 처음으로 同人作品의 展覽會로서 展覽會를 열게 되엿스니 이것이 곳 協展이 엿다。그럼으로 벌써 十五年史는 우리 書畫壇에 한 貢獻을 드린채 오늘까지 繼續하면서 해마다 [illegible] 준」이되면 긴花啓發한 光景을 보혀 우리네의 情操를 살지게 하는것이엿다。그러나 協展이생긴지는 十五年이면서 展覽會回數는 十四回이것은 中年에 어느事情으로因해서 한해만은 展覽會를 開催하지못한때문이엿다

그러고 이 協展의 主體인 書畫協會는 그일홈과가티 同人制인만큼 作品陳列에잇서서 會員은 無鑑査이고 非會員은 鑑査制인데 藝術은 無代로 書畫協會의 發展을 爲해서하는것이엿다。

그러고 作品의部門은 書와、東洋畫、西洋畫의 三部로 논하엇는데 年來의經向으로보아서는 西洋畫가 第一만코 그다음이東洋畫이고 書가 第一 零星한모양이나 이것은 大勢의 所致이니 또한 엇지할수업는일일것이다

江都遊記……(一) 水路九十里

鷺山 李殷相

바다를 보고십허
바다에 뜨고십허
願하던 그바다에
이제정작 떳건마는
입단고 할말이업서
甲板欄干에 지혓노랑

지금 나는 바다우에 떳습니다。이노래를 부르든 지금은 十月十一日에도 午後두時。

仁川港을 떠나 어느결에 半時間이나 지나온 여기는 西海에도 한바다。

여기 이바다─ 또한 歷史의 一區면마는 호올로 일업는 갈매기두셋、배압흘쏵아 배뒤로 빠저 멀리어디론지 날아가버리고 이제 蒼茫한바다─ 하늘과 다한는데 물결소리밧게 들리는것이 업습니다。

오래 잠기엇던 感激의 本性이 저절로 이漠漠한 물결소리에 餘地업시 열리고서、날도모르고 나모르는동안 몃번이나 긴숨을 내쉬고 잇습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마음과 내생각을 表現하기 어려운때에 『한숨』으로 대신하는 버릇이 잇습니다 그럼으로 오늘지금도 願하던 西海우에떠서 이거마는 無意한 한숨바게아무할말이 업습니다。

甲板우에 올라 돌어가는 가을바람에 가슴을 쏘여본지라 기픈恨을 재일수업고 글은 만들어 너무도 가벼우매 무거운맘을 건드릴수 업습니다 여기 말과글이 끈친곳에 한숨과 다른무엇이 잇겟습니까 나의無限한 感慨를 形狀업는한숨에적어 바람결에 날리고 섯습니다。

군대군대 이름업는 岩島── 千萬年 세찬風雨에 깍기고깍긴 赤白의 뼈다귀들──解壓아래 부드치곤 깨어지는 물결의慨氣──거기

反射되는 가을夕陽──夕陽을띄고 어딘론지 떠가는 조고마한漁船──그속에 안즌 白首와裸子──이가튼 情景쯤 처음보는것은 아니건마는 오늘따라 내마음이 웨이가티 흔들립니까。『多情한 잠깐 버려두고 몸만 이배에 오를것을 ……

月尾島 멀리뵈야
어드메로 가는길고
江都 九十里
半이나볏서 지낫나뵈
갓업시 지는해따라
물결물결만 가고지고。

無心코 어노래를 부르면서、나는 내가슴속에 깃드리고잇는

凜淑의 神이아직도 잘들지안흔줄을 알앗습니다 생각하면 비할무엇 아득한곳에 거어 個性的으로 머물러잇서 사노라 사는것이 사나이의 또히할일이 아닌것도 갓습니다 내 하늘이 업는사람에겐 간곳마다 그하늘이 내하늘이오、내 糧食이 업는사람에겐 간곳마다 그糧食이 내糧食이니、오늘여기 오히려 感興으로 넘처주엇이 잇다하면 그것은 다만 저 漂泊의 길이겟습니다。

그러나 보앗시오! 散文도 韻文을 잇고 도닷는 사람에게 眼精이 아 버들어진 運命인것을 어찌하리까。 (續)

女學生의「스포-츠」是非論
─英國新保健協會에서發議─

【倫敦聯合郵信】 前者 『암게-트』에서 開催된 英國新保健協會席上에서 醫師『레오날드·윌리암스』博士는 現代女學校 敎育을 痛擊하여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現代의 女學生은 學校에서競技에對하야 非常한 競爭心으로 體育을 强制하는 때문에 甚하면 衆暗까지도식힌다 그래서 그結果는 이 鬪爭心이 『게임』以外에 까지도 밋처서 甚히 粗暴한 好戰的인 女性이된다。此等의 敎育을 밧고잇는女學生들은 그大部分이中性的인 老孃으로서 彼女等은 自己와가튼 型의 生徒를 만드려고하고잇다。열은입설과平板가튼가슴을 가진 老孃들은엇더케든지해서 女學生들을 粗暴하게만들려고苦心하고잇다』

이러한암스博士의 說에는 直時 父兄、敎師、醫師로부터反對의소리가 이러나서 英國社會衛生局總務課長 『드라본드、시-르즈』博士는 다음과가치 反駁햇다。

『젊고 元氣잇는 處女들의 創造的인 『에너-지』는 競技와 『스포-츠』中에 極히 自然도는 健全한境地를 發見할수잇다 女學生이 게임에 熱中한다고해서 그것이 決코 彼女等의 一般生活까지를 粗暴하게 만드지는 안흘것이다』云云

英國과成層圈

【倫敦聯合郵信】 成層圈의征服은 現代의 科學者에게 課된 큰問題이나 最近 英國에서 成層圈에 對한 關心은 著名한 飛行家『생필』卿이 倫敦의 『올림피아』에서 行한 演說에依해서 一層 더욱熾烈하게되엿다。

『생필』卿은 大要다음과가치말하엿다。

『우리大英帝國의 將來는 疑心할것도업시 迅速한 交通通信手段에依存해잇다 따라서 이러한 手段은 成層圈의 征服利用에 依해서만 遂行 될수잇는 것이다 우리들이 참으로 高速力을가지고저한다면 엇더케한든지 容中 더구나 成層圈에依賴하지아니하면안된다。比較的稀少한 費用을 가지고 高速力을 어들可能性은 成層圈에잇서서 非常히크다。英國으로서는 從來以上의 關心을 가지고 可能한限度까지 成層圈開拓硏究에 從事하지아니하면 안된다。』

新刊紹介

▲社交ダンス全集(七) 玉置眞吉著 東京神田美土代町二四 靑樂世界社發行 振替東京七二九三七番 定價五十錢

▲運輸界 十月號 京城府花園町七九 合資會社運輸通信社發行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米國の秋聞 東京市京橋區銀座西八丁目九番地 新聞聯合社發行 定價五十錢 京城販賣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十番地 新聞聯合京城支局

▲朝鮮工業會報 第三十號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三十錢

▲朝鮮鐵道協會會誌 十月號 京城府古市町十四ノ一三 財團法人朝鮮鐵道協會發行 振替京城一二〇三八番 定價五十錢

▲[illegible] 第三〇號 京城府[illegible]發行 定價十五錢

黑風 【155】

韓龍雲 作
金秉超 畵

녀성해방회 9

『나의 의견을 종합하야서 강령을 세운다면

제일 녀자의 졸권을 향상(向上)식히사

제이 결혼과 이혼을 자유로 햄사

제삼 남녀가 한가지로 정조를 직히사

제사 경제권과 참정권의 획득을 기도할사

이러케하고 차차 일의 진행을 따라서 개정하는것이 조흘듯합니다』

하고 창순은 단에서 나린다

『야! 이건 정말 미지근하구다』

『열녀 표창식에서하는 식사나 수양강화보다는 조금 강미가 잇는듯 하다마는 녀자해방의 혁명사상과는 십만팔천리다』

『아직 머럿다 불을 조금 더 때어라』

이러한 등의 조소와 이기죽거리는 회원이 만하야 누구하나 창순의말을 찬성하는 회원이 업섯다

『그말슴은 참고로 드러두겟습니다』

하는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얏다

『그녀자는 꽤 미인인데』

『어떤녀자?』

『지금 말하든 녀자』

『미인뿐아니라 리론이 상당한걸』

『그녀자는 일시의 풍조에 날뛰어서 되는대로 지꺼리는녀자는 아닐세 올흔지 그른지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뿐아니라 그리론이 상당한 학식과 소양이 잇는 리론일세 지금 녀자운동의 리론으로는 그이상 더할수업는 적절한 리론이걸』

『그러나 저러나 그까짓말은 고만두오 날저녀에 연애나 하러가세』

『어대로?』

『어대든지 녀성해방회원은 누구든지 연애할수가 잇는것이 아닌가』

『엇지?』

『엇지라니 혼의제도를 폐지하고 자유연애를 실행하는데 못할것이 무엇인가』

『오! 그러니까 그런녀자는 자미업네 연애라는것은 일종의 신비성(神秘性)을 가지는것인대 그러케 러노는 녀자에게는 아모자미가 업는것이네 그려고 주동이들만 살어서 말뿐이지 실행이 무슨 실행이란말인가、그래 그녀자들이 모다 제맘대로 자유연애를 실행하리란말인가 그러할 용기가 잇스면 제법이게』

방청석으로부터 허러저가는남자들은 이러케 지꺼렷다

해는 석양이되엿다 성에가득히 저녁연기는 흐터지는데 기러이때들이 남으로 날어가서보는사람으로 하야금 새상스럽게 가을의 깁허가는것을 깨닷게한다 집으로 도라가는 창순은기러이때의 조금도 어지럽지 아니하고 정연하게 날어가는것을 보고서 다시금 녀성운동의 압길을 생각하엿다 자기가 보고오는 녀성 해방 회의 광경이 너무도 과격하고 랄선적이어서 마음을 상할만치 개탄하든 남어지에、궤도(軌道)가 업는 가을하늘에 떼를지어 날어가면서도 조금도 문란하지 아니하고 질서가 정연하게 날어가는 기러이를 볼때에 자연히 그것이 부러웁고 자기들이 부끄러운듯 하얏다 무론 모든 운동이 과도시대에 잇서서는 밥듯이 소의착오도 업시 순서적으로 되기는 어려운일 이라는것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마는 나라를 근심하고 민속을 사랑하는 창순으로서 자기나라의 모든운동、그중에도 자기에게 직접 관계가잇는 녀자운동이 너무도 기분적인 혼란상태에 잇는 것을 염려하는 중압으로 무심히 날어가는 기러이를 보고서도 오히려 갈동한배 잇서서 나는 새의 질서 잇는것을 부러워 하고 사람의 운동으로서 그만못한것을 스스로 책망하기에 이른것이엇다 창순은 다시 마음의 적은 기틀을 돌녀서 기러이도 과도시대의 혼란상태를 지나서 상당한 후련을 바든뒤에 저러케 질서잇시 날어가게 되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야 보앗스나 그것은 그러한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능(本能)이라고 단정하엿다

現代科學의精髓 梅毒에 胎毒에 沃素療法
六〇六號、水銀等의不自由를 解決한 最新醫學과 數十年硏究의 結晶인 新療法과 調和合한
最新沃度劑 重症用毒掃丸
氣分좃케 冷毒을排除한다

毒掃丸
도 소 환

重症用毒掃丸의適應症
急性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遺傳梅毒・[illegible]梅毒・梅毒性[illegible]・淋疾・가래토・[illegible]

普通用 藥價 九十錢・一圓
重症用 藥價 二圓・三圓・五圓
小兒用 三十錢・五十錢・一圓
重症用毒掃丸은新發賣品임으로貴若藥店에品切時엔直接本舖에注文하시라
本舖 東京神田 山崎帝國堂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番
(全國藥店에잇슴)

山崎
瘡滅散
[illegible]・데론무진・창할
定價 三〇・五〇・一圓

黃海道內 一百卅餘 繰綿工場作業停止

道에서 作業을 不許해

朝紡의 棉花買占權을 強化시키라고

【沙里院】 도령으로 실시된 면화지정판매(指定販賣)는 생산자와 소비대중을 고려치아니한대자본의 권익을 옹호하는것이라하야 여론이 비등하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황해도도당국에서는 조방(朝紡)의 면화매상독점권을 철저강화하야 한근의 면화라도 사매를방지하기 위하야 도내 일백삼십여의 조면공장(繰綿工場)의 조면작업을 지난구월일일부터 금지하야 지금작업상황긔에 긔계를 운전치못하고 영업을정지한 상태에잇는데 도당국에서 금업이내에 작업허가를 하여주지안흐면 일백삼십여의 당업자들과 여긔에종속한로동자 삼사백명의 생활에 큰 문제라하야 도내 당업자들은 지난 이십삼일 사리원서리(沙里院西里) 윤명우(尹明祐)씨집에서 각군 조면업자대표이십여명이 모히어 대책을협의하고 아래와가티 진정위원을 선정하야 도당국에 속히작업허가를 하여달라고 진정하기로 하엿다한다

◇陳情委員 李壽延 尹明祐

稀有의 自働車'깽' 覆審에 五年役

【平壤】 지난팔월십일일밤 열한시경 평양부외 경의도로(京義道路)에서 이회나 자동차를 습격하여 당시세상을놀내인 희유의 자동차깽사건의 주인공 북해도출생 옥곡도차랑(玉谷道次郞)(三○)에관한 공소심의판결언도는 평양복심법원에서 이십이일 일심대로 징역오년의 선고가 잇섯다한다

面督勵員의 脫線

메돌 올린바람에 夜半에 亂鬪코 警察에 톡톡한 꾸지람

【揷橋】 요지음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고잇는 정조강제검사(正租檢査)제도는 주지하는바이어니와 아즉일반의 손이 익지못한관계로 도처에서 불상사가속출함은 날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바 이제 충남례산지방(禮山地方)에서도 군(郡)을 위시하야 각면(面)에 립시 독려원(督勵員)을 두고 독려를하다가 동군삽교면(揷橋面)하포리(下浦里)와 동군봉산면마교리(鳳山面馬橋里)와광시면(光時面)농지에서 농민과 충돌된사건은 자못중대시안할수업스며 일반의 여론과 비난이 자자한이때 독려원들은 이를의를 무시하고농촌에가서는농민에게폭행 시가지에 나와서는 주민과충돌을 긔탄업시 감행하고잇스니 참으로 한심타아니할수업다 이제지난 이십일일 오후 십이시경에 끈이잡는 삽교역전 주민들동식이여 비난이 잇섯다는데 그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동면 독려원들은 낫부터 밤열두시가 넘도록 역전모처에서 술을마시고이따가 동역전 화물차부(貨物車部)견습생(見習生)등과 사소한 말머리가 잇자 독려원일당은 까닭업시 난타를하자 이에 항전되여 일대소동이 연출되여 쌍방이 모다 중경상을입고 대치하고잇슬지음에 동면경찰관주재소(駐在所)원의 제재로 싸홈은중지되엿는데 경찰은 전긔 독려원을 호출코 엄중한설유를하엿다는데 일반의 비난은 더욱놉다한다

白晝에 窃盜侵入 現金八百圓窃取

遊仙鷄林驛前에서

【遊仙】 지난이십일 오후네시경에 회녕군운두면유선동 계림역전(會寧郡雲頭面遊仙洞鷄林驛前)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는 전긔순상점(全基舜商店)에 절도가침입하야 주인이 업는틈을 타서 잠근돈궤문을 칼로 뜻코 현금팔백원을 절취도주하엿는데 급보를 접한 유선 주재소에서는 범인수사에 대활동중이라한다

進禮三十二部落 婦人團聯合會

【進永】 실업모범촌(實業模範村)이란 칭호가잇는 경남김해군진례면에서는 수년전부터 타면에 솔선하야 면내삼십이부락에 부인단을 조직하고 공동작포와생활개량등 사업을 실행하여오든바 지난삼일에 진례면사무소에서 부인단연합대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원삼백여명이 출석하야 다시실행사항으로 야외로동(野外勞働)반미저축(飯米貯蓄)매월 정긔청결(每月定期淸潔)등등을 결의하고 이어서 김해군수로부터 일장훈사가 잇슨후동군수의 알선으로 금년산업성적이 우량한담안(淡安)계동(桂洞)평리(坪里)시례(詩禮)신안(新安)오부락에 대하야 저리자금으로 일부락에 답오반보(畓五反步)식을 매수하야 공동경작키로 하엿다

記者團主催의 國境蹴球大會

新蹴팀이 優勝

【新義州】 신의주 조선인긔자단주최(新義州朝鮮人記者團主催)의 제이회 국경축구대회는 지난이십일 오전십시반부터 신고보교정에서 참가팀륙개단체로 개최되엿는바 먼저 원래의 선천체육(宣川體育)과 신진의 신축(新蹴)팀의 맹렬한 접전으로 시작되야 결국 신축팀이 이기엇고 결승전에 들어가 단체훈련바든 신고(新高)팀과 신진 신축팀의 맹렬한 접전끗테 오대이로 신축팀이 우승(優勝)하엿는바 당일은 더구나일긔가 명랑하여관중이 천여명에 달하엿스며 동 오후륙시 무사히폐회되엿다한다

京城新義州對抗 럭비ㅣ蹴球競技

新義州團來卅日出發

【新義州】 럭비ㅣ축구로 장차 큰일꼿을 떨치고저하는 신의주운동게의 일대쇽크‖신의주럭비ㅣ구락부에서는 경성의동호자의초청에 응하야 경성、신의주대항럭비ㅣ경기를 하기로 결정하야 신의주럭비ㅣ단에서는 래사십일에 상경하기로되엿다 신의주의 각개인사가 이장거를 찬성하야 후원이열렬함은 물론 관계자들은 그준비에 분망중인데 래이십칠일부터 이십구일까지 삼일동안은 특히 신의주 고려영화사(高麗映畵社)의 후의로 신극장(新劇場)에서 선전겸비용의일부를 보충키 위하야활동사진대회를 개최한다고한다

嶺美市民大運動會

▲時日 十月二十六日
▲場所 嶺美公設運動場
◇主催 嶺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嶺美支局

從兄家族鏖殺한 殺人魔公判開廷

지난二十二日晋州法院에서 立會檢事死刑을求刑

【晋州】 종형 가족오명을 참살한 희세의 살인마 하동군 진교면 고리동(河東郡辰橋面古梨洞) 강남조(姜南祚)(二○)에 관한 살인피고사건의 공판은 긔보한바와가티 지난 이십이일 오후한시에 진주법원지청 제일호법정에서 이등(伊藤)재판장주심 오(吳)、차경(此經)량배석판사、민(閔)검사립회하에 개정하엿는데 피고 강남조는 창백한 얼굴에 고 살이빠저 두광대뼈가 쑥나온것이 옥중고를 넉넉히 알수잇섯다 사실심문에들어가 범행일체를 시인하엿스나당 초부터살의로써 행한일은 아니라고말하엿다 심문이 끗난후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죽어누어잇는현장의 사진과 피고가 흉긔시 사용한 팡이 몽둥이등과 피묻은 의복가지를 증거물로 내어노흘때에 수많청객들은 다가티 처참한 늣김을바덧스며 다음 검사의 론고에 들어가서『피고가 죽일미움이업시 무아중에 한일이라고 부인하나 한등피고에게 반항지못할가련한 두어린아이를 죽인것을보면 당초부터 죽일마음으로 햇다는것을 미루어알수잇다』고 준렬히론고한후 사형을 구형하엿다 이어 홍(洪)변호사의 감형변론이 잇슨후 동세시이십분에 폐정하엿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이십구일이라한다

鎭興公立普校 校舍增築運動

【鎭興】 함남진흥공보(鎭興公普)는 영흥하단(永興下端)조흔교육게에 잇서서 중심적 지위에처하야 잇슬뿐만아니라 호도(虎島)고령(古嶺)억기(億岐)삼면 공보가 아즉사년제에 불과하는관계상 우긔 삼면지방에서 사년을 맛친아동은 거개진흥에 전학하게되여잇다고한다 그러나동교는 교실기타 모든관계로보아 지원아동의 요함을 소화하지못하얏다고한다 그럼으로 동교학부형회에서는 금춘사월분 정긔총회시에 교사증축문제를 협의하야 토의한결과 동교증축의 필요를이구동성으로 결정하엿다는바 그를 완성할때까지의 총경비는삼천원이라는바 면내유력자와 부근 팡양가의 후한동정으로 경비 조달이 매우 조흔성적을보게되여 증축공사는 금동긔에착수하리라하며 신교사사용은 명춘신학긔부터는 실현하리라고한다

돈일코 留置場까지

弱한것은 勞働者

【新義州】 은밀수가 아모리유리하다하지만은 역시 자본을가진사람의 말이오 자본이업거나혹은 잇더래도 적은 밋천으로달려드럿다가는 도로혀 실패를당할뿐안이라 시비가 되는 때에는세력에 눌니어 억울한 류치장구경만 하게 되는 일이 만타 즉신의주 미륵동(彌勒洞)거주 전시경(田時景)등 열다섯명은 금년봄부터 잇는 밋천전부를 털어 백원혹은 이백원내지삼백원식의 보증을 대이고 은밀수입운반을 하여왓는데 그중간리을 먹는 말하자면 운반청부업자비슷한 역시 미륵동거주 장응규(張應奎)는 그공동업자인 정용호(鄭用厚)도 알리지안코 금월이일 은삼천원가격어치를 가지고 종적을 감초아 버리매 정용호는 이것을알고 전긔운반로동자들이 운반한고잇는 「은」을 원하주(元荷主‖新義州大榮商會)에서 갓다주게하고 자긔의보증금 삼천원을 차저내고맙엇다 그리되면 전긔운반로동자들이 대여든 보증금은 그저일케될편임으로 로동자들은 정용호에게 이를 청구하얏든바 응치안함으로 차용증서라도 써주기를 애원하야 이것을 바덧섯는데 정용호는 협박에의하야 이를써주엇다고 전긔로동자들을 상대로 신의주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제긔하얏는바 신의주경찰서에서는 그사실을 조사코저 전긔로동자중 전시경、김보천(金寶泉)백인흥(白仁興)차대도(車大道)등네명을 구속하고 목하 취조중인바 그귀결이 장차엇지될는지 생명과가튼 자긔전재산을 일코 그우에 류치장에까지 드러가게된은 크게 억울한일이라고한다

龜城郡下에 棍棒强盜

金二百圓强奪

【新義州】 지난이십일일 오전세시경 귀성군관서면북송동(龜城郡館西面北松洞) 김리호(金利浩)방에 곤봉강도두명이 들어와서 전긔주인인 김의머리를곤봉으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현금이백원을 강탈도주하엿슴으로 목하귀성 경찰서에서는 엄중수사중이라한다

仁川와서 自殺

永新學院敎員

【仁川】 강화군 서도면 아차리(江華郡西島面阿此里) 영신학원(永新學院)교원 오세대(吳世大)(二?)는 지난 이십일일 오전팔시경 인천서공원 도서관압에서 다량의 최면제를 먹고 신음하는것을 즉시 인천병원(仁川病院)에 운반 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 동십시경 드듸여 절명하엿다는바 원인은 알수업다한다

盛況을豫期하는 三岐大運動會

【三岐】 삼기시민회에서는 본보삼기분국후원으로 오는삼십일오후두시부터 사일간 삼기운동장에서 자전거각희 마라손 남녀추천대회등을 개최키로되엿는데 원근 남녀선수는 다수참가가잇기를 바란다는데 북조선으로서는 듬은 운동회인만큼 벌서부터 인기가비등하야 대성황을 예기한다고한다 당일의임원은 다음과갓다

會長高晃 審判長金明煥 指揮部長金廷浩 警備部長張 接待部長朱元 設備部長

異次頓의 死 【23】

李光洙 作 金奎澤 畵

입금은 아직에 잠이 깨는길로 운물은 이차돈과 달님을어떠케 죽일것을 생각하엿다 입금은 어젯 밤의 불쾌함과 오늘 할 일이 불쾌하엿다。 신긔가 불편하엿다。

왕후는 입금이 신긔가 불편하신것을 보고、

『어듸가 또 편치아니하시오?』

하고 염자왓다。

『마음이 편안치못하니 몸이어찌 편안하겟소?』

하고 입금은 말하기도 원치아니하는드시 대답하엿다。

왕후는 입금의 마음속에 이차돈과 달님을 죽일 생각이 끌코 잇는것을 알앗기때문에 어찌하여서라도 그 마음을 돌리고십헛다。그것은、왕후는 아두시마(阿頭?麻)의 말을 전해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그 보복이 들아온다는것을 밋는 까닭이엇다。

묵호(墨胡)라는 별명을가진 아도하상(阿道和尙)이 고구려로부터 신라에 들어와 일선주(一善州—지금 慶北善山)모례(毛禮)의 집에 잇스면서 불도를 전한후로 민간에서는 불도를 밋는 사람이 때 잇엇다。아도화상이 처음들어온지 백오십년이나 되도록 나라의 입밖으로 내노코 홍통(전도)은 못하여도 몰래몰래 도에 귀의하는 사람은 날로늘어서 서울에도 서드릿께 건너 소고마한 절 하나가생기고 거긔는 남승도 여승도 잇섯다。그 중들일반에서는 아두시마라고 불럿다。아도시님에서 변한 말일것이다 그래서 직접 불도에 돌아오지아니한 사람도 전생、내생이라든지、인과응보라든지、살생의 죄라든지、인생은무상이라든지하는 생각들을가진이가 만케되고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부처님이라는 검님이대단히 영검하다고 해서 몰래 절에 가서는 복을 비는 이도 잇섯다。왕후도 상감이 오래 병환으로 게시는 동인에 몰내 궁녀를 절에 보내시어 부처님께 긔도도 올리게하고 또 무량수경(無量壽經)이라는 불경책을 어더다가 읽으시기도하엿다。그러나 나라에서는 검님을 뫼시고 마지를 올리고 굿을 하고 하는 선도가 잇기때문에 내노코 이런 일을 할수는 업섯던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잇스므로 왕후는 입금이 이차돈과 달님을 죽이시는것을 원치안케 생각할뿐더러 혹시나 입금이 이루 취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벌을 바다서 배힘이 떠치시기나하면 어찌나 하는것을 근심하엿다。

『상감마마』

하고 왕후는 신긔불편하신 상감께 조심조심하야 말을 엿줍는다。

『웨 그리오? 또 이차돈과 달님을 살려주라는 말을 하라고 그리오?』

하고 낫을 찡기셧다。

『예、그리하오이다。죽이는것은 올치아니할듯하오니 달리 처분하십쇼』

하고 왕후는 간절히 아뢰엇다。

『죽이는 것이 조흔 일은 아니지마는 검님께서도 갑히어 죽이라는 말이 아니오? 이차돈이라 하셧스니 죽일 놈은 죽가튼 놈을 안 죽이면 나라의 서슬이 어떠케 선단 말이오? 다시는 그런 말슴을 마시오』

하고 입금은 왕후의 청을 뚝 잡아떼시엇다。

이 때에 평양공주가 들어와서、

『아바마마 안녕히 주무서게시오니까? 어마마마 안녕히 주무서게시오니까』

하고 아침절을 들이엇다。

『오 악아 잘 잣느냐』

하고 입금은 따님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신다。

『이몸이 어떠케 잡니까。꼭 밤을 안저서 밝혓습니다。이차돈과 달님의 목아지가 떨어지고 그자리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는것을 이 눈으로 보옵기 전에는 천년만년을 가도 잠을 잘것갓지아니하옵니다。아바마마 이몸의 원을 풀어주시겨오』

하고 공주는 입금의 압헤 엎더려서 운다。

『마마 이것을 보시옵 이것이 가엽지안소?』

하고 왕후를 돌아보신뒤에、

『오냥 염려마랑。오늘 조희끗에는 연과 놈을 다 물고를낼터이니 염려마라』

하고 굿게 결심하는 표를 고개를 한번 흔드시니 길다란수염이가 몹시겨이 진다。

왕후는 공주를 노려보며、

『씨아、네 어찌 아비마마께 그런 악독한 말슴을 엿줍는냐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지못하고 그런 악독한 생각을 품느냐 어미가 밤새도록 그처럼 여려말을 일러거든』

하고 다시 입금을 바라본다。

資生堂洗濯石鹸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음을안남기고 쓰기조타
一 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銀座 資生堂

東洋에唯一인 注射와同効한 內服藥

神經痛 류마치스 患者여러분께

神經痛류마치스로 手足의關節과 脊柱와顔面과 頭部와 筋肉等이甚히 아푸고저리고 땅겨서 오래동안 辛苦하시는 여러분께 참으로 同情하나이다

世上에는 여기에對한藥은만히宣傳하지만은 治法을 줍만한根治藥은 하나도업다고해도 過言이안일줄밋습니다 이와갓흔大部分의 宣傳藥은 全部가 西洋藥本位로되여 衣食住가다른東洋사람의體質에는 여러가지로適當치못함을밋사오며 東洋에서단지 하나인 神經痛良藥「野久之」는 말하면 古代로부터傳해오는 獨特한處方이므로 近世에發達된西洋藥이따르지못할 理想的奇妙한作用을하야着着難病을救治하고잇습니다 이것은日本에서唯一한秘傳良藥으로서古代로부터有名하엿지만 元來에特殊한原料와獨特한調製法에依하야製造하는關係上 大量의製造를 할수업서서他藥店에販賣치못함을 遺憾으로 생각하옵든中全快者諸氏로부터宣傳되여 日加月增의 比로複續注文됨으로 今般當市에出張所를設立하고 날로 시드러가는病者를救하기爲하야 直接注文者에게限하야만 效藥하기로햇사오니 이런機會를利用하야附續注文하야服用하시고全快하심을바라나이다

當所에는讀者여러분의便利를 도모하느라고 朝鮮文으로쓴 說明書가잇사오니 朝鮮日報에서보섯다하고、편지나엽서로病勢를통지하시면、治療方法과野久之의由來와全快者의感謝狀과其他여러가지說明書를보내드리고全快의길을밝부시도록專心專力하고자하오며 先金注文하시는분에게는送料를부담해드립니다、藥價는內用藥‧一週分二圓、二週分三圓五十錢、三週分五圓、外用藥一圓、二圓、參圓等

東京市京橋區入舟町 藥野莊東京出張所 振替東京五四五〇番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番

鮮産代表銘酒

櫻正吉 一升瓶詰

愛飮家優待

一本每ニ 御家庭調度品トシテ恰好ノ 台付美盃 二組進呈

◎特賣區域(大田以北)

京城 山邑酒造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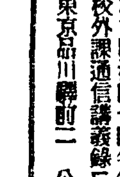
오ㅣ라잇 입맛이댕긴다

반찬가지수도이만하면만족하려든 아지노모도를겻드렷스니 문제잇나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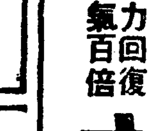
『四季朝鮮料理法』 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鈴木商店 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할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吾人은일이一技를배워서獨立的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東京寫眞學校



精力回復 元氣百倍 オセロ(오세로)로 非常時突破

￥1.20 ￥2.00 ￥3.50 ￥5.00 各地藥店에잇슴

돈버리大王 리도ㅣ式 膨脹機

五合의米와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新型各種 가다로구進呈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二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

기미가요 君が代 白毛染 赤毛染

婦人은于先白毛染 頭髮의化粧은君が代로

君が代는 定價 新型粉製 二十錢 四十錢 新型液製 五十錢

德用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슴니다

萬一品切時에는本店에直接請求하시오

本舖 東京市淺草區新谷町一丁目三番地

朝鮮製絲의 更生問題推移

難關諸點이 尙多?

[illegible] 實現을 압두고 그동안 東光生絲對 朝鮮製絲間에는 다음과가튼 論議가 交換되엇다고한다 朝鮮製絲에서는 東光에對하야 賃貸借契約의 解除를 要求함에 際하야 東光이 그동안에 드린經費及事務等을 適當히 報償하겟고 그代身 東光은 現在作業現狀그대로 朝鮮製絲에 引繼하여달나는데對하야 東光側에서는 그것을 完全한 更生策으로 볼수가업다하야 一部의反對도 업지안호나 時勢가時勢인마치 社長閔奎植以下大體는 應諾할 意向도잇는모양이고 原料繭問題에잇서 多少 困難이 잇는모양으로 東光側에서는夏秋繭購入에잇서 朝鮮製絲의 原料購入領域을今秋期限 朝鮮製絲로부터 讓受하는 同時에京畿道當局의 [illegible]를어더서 購入한것인데 購入當時보다 繭이昂騰하엿슴으로 東光에서는 朝鮮製絲에對하야 原料繭全部를 自己네에게주던지 그러치안으면 現時價대로 買收하던지 그러치안으면 相當한利益을달나고한다는바 朝鮮製絲側은 年末決算期에가서 利益에相應한 分만은 重役會의決議에 依하야 東光에 提供하겟다고함에잇서 東光의一部에서는 反對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이問題에잇서 東光이主張하는 바의 原料繭을自己네가 가저간다고하면 그러지안허도 原料繭이不足되는 現狀에잇서 工場은 操短乃至 一時 休業을 하지안흐면 안되는 이問題가 잘 解決되고 못되는데서 四百餘職工의 死活問題가 決定될것으로 一般의 注目을끄는바이라한다

廿四日重役會 今後解除交涉

朝鮮製絲에서는 二十一日 臨時 株主總會以後 第二次 重役會를 二十三日 午後六時부터 東大門外 中央佛敎에서 開催하고 會社更生策에對한 具體的對策과 代表取締役 支配人 決定하는데 代表取締役으로는 金[illegible] 支配人으로는 [illegible] 金佐鎭氏가 되리라고한다

關係諸方面意見

更生策의 一端

製絲社長 金[illegible]氏 談

一、東光生絲側과 賃貸借契約을하엿스나 製絲業令發布도 잇서 會社의生命이 업서지게될念慮가잇슴으로 解約에 應치안흔것이다

一、元成氏와의 交涉中 納利金의五割을 當分間이라고한것은 元氏가 會社의內容을 모름으로 當分이런形式을 取한뒤 徐徐히 充分히잘안뒤 [illegible]

完全히 會社의作業을 하라는것이다

一、[illegible]에 對하야는 여러가지의案이잇슴으로 오는重役會를 압두고 [illegible]할터이다

一、東光生絲가 解除에不應할理가 업고 만약 不應한다고하드래도 다시 充分히 意見을 交換하면 解決을 보게될것으로 생각한다

一、元氏가 取締役으로 안되엇스나 東光生絲의 關係가 解決되면 될것이며 어떠한 지 나는 製絲로서는 이번 更生策의 一端이라고 잇는다

變態的賃貸借

東光生絲 閔奎植氏 談

나도 製絲株主로 會社에 出席하야 그更生안은 賛成하엿다 그러나 東光生絲의 立場으로 그것을 보면 쓸데업는 更生策이라고 말할수가잇다 그럼으로 製絲側에서 解決方法이잇스면 決定할터이다 그러나 新更生案에는 東光生絲를 열어서 決定할 會社[illegible] 賃貸契約이 업스나 倍以上의 製絲賃貸金을 [illegible] 가 생긴 解約에 비춰서 好意로 解除에 應할생각을 가지고잇는 그런 更生策으로는 疑問

更生策은 疑問

吳東銀業務課長 談

그更生策內容만 가지고는 更生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즉 製絲로부터 何等

漠然한內容

株主 朴[illegible]九氏 談

나는 朝鮮製絲의 創立當時부터 出資를 爲하야 努力도 만히 하여오고 株主로서 나는 同時에 [illegible] 道 重役會를 다한 사람이다 그래서 [illegible] 會社와 [illegible] 이 [illegible] 成明信氏의 誠意는 두고보아야알겟다 그러고 金[illegible] 氏 自身도 會社를 爲하야 努力과 [illegible]을 만히 할줄아나 更生에 際하야 于先 自己의 [illegible]을 扶殺하는 同時에 他債權者에對한 [illegible]도 誠意 [illegible]하지안는限 그 更生策亦是 漠然하다고본다

의 말이업슴으로 銀行에서는 [illegible] 交換公式으로 重役會議를 가지고 [illegible]가 완전한 更生策이 樹立되면 銀行으로서도 何等 [illegible] 必要가 잇슬것이다

細農換金賣開始의 新穀期米價가暴落

朝鮮內各地米出廻增加로

今後低價程度重視

新穀出廻期가 本格的으로 展開가 됨을짜러서 米價의趨向이 注目되는이때에잇서 朝鮮內各地正米市價가 漸次軟勢를 띄여오든바 廿三日期米의暴落을보고 廿四日午前에는 다음과가티 各地正米가 一齊히崩落을 나타내엇다 이와가티 米價가急落함에對한 表面理由로는 (一)朝鮮內新穀의出廻旺盛 (二)日本內地의拂下米壓迫을 든다 그러나요새 新穀出廻라는것은 大部分이 細農의換金的賣物이 시작된것으로 이들의賣物을 잘알고잇는 米穀商은 大勢는 米價高의位置에 잇는바가 만흠을 不拘하고 오즉新穀出廻의壓迫이란理由압에 淸算取引의仕手戰을 비롯하야、正米에 일흐기까지 될수잇는데까지 米價를내리치라는 策動이 相當히 加味되엇이 裏面理由로 볼수잇다고한다 그럼으로 新穀期에잇서 米價低가 어느程度에일흘가함이 注目끄으는 點이다

▲京城三等米(一石)五十錢低▲仁川三等米五十錢低 ▲釜山三等米五十錢低 ▲大邱二十錢低 ▲群山三十五錢低▲木浦二十錢低

移出港在米 四十七萬石

今月廿日現在量

朝鮮各移出港의 二十日現在 在米高는 民間所持 十五萬二千九百六十八石 政府所持三十二萬八百四十五石 合計四十七萬三千八百十三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萬四千七百六石이 모다減少하얏다 (單位石)

그리고 各港別은 如左하다

	民間所持	政府所持
▲釜山		
日本內地米	一,六五	—
玄米	一六,〇九〇	六九,六七二
白米	一三,一六〇	—
籾	六九三	—
▲馬山		
正租	一,〇四〇	—
玄米	一,四三四	—
白米	二,三一三	—
▲木浦		
日本內地米	一,一五〇	—
正租	二,七八〇	—
玄米	一二,三五〇	六九,一四一
白米	一三一	—
▲麗水		
正租	五,八五〇	—
玄米	二,二〇〇	—
白米	二,一一〇	—
▲群山		
日本內地米	一,八二〇	—
正租	一,三五〇	—
日本內地米	一,四〇〇	—
正租	五二,六〇〇	六〇,九三五
玄米	二,六三一	二五,〇一〇
白米	九二一	—
籾	七九	—
▲江景		
玄米	二,四三〇	五七,三五一
白米	二,四〇〇	—
正租	二,一六八	—
▲仁川		
玄米	二,五八〇	—
白米	一〇〇	—
日本內地米	二,五三三	—
正租	二,〇五九	五〇,五六三
玄米	二九,〇二一	五〇,〇一二
白米	四〇	—
籾	三六九	—
▲鎭南浦		
正租	三,二五〇	五五
玄米	二九,八六三	三三,〇八五
白米	二五,九六九	—

新穀期配船協定

東京에서協議中이나成立難

諸紛糾難免의形勢

十一月의 出穀期配船不足은 朝鮮의 暴騰等海運界의 特殊的事情으로 不可避의 狀態인데 朝鮮米運賃協定이 自由積載의 關係上 荷主側은 憂慮하야 目下東京에서 日本內地荷主를 中心으로 各社會社와 協議中의內容도 이 積載量期의 配船補償을 求하는것인데 이에對하야各社會社는 協定前配船協定을 協議中으로 그眞意는 이協定에全然期待를 두지안는때문이다 目下의 新穀米運賃(阪神積載六十圓五十錢割戾)으로는 社會社의 採算으로 一航海一個月二千圓의 損失을 免치못한다 配船의 補償도 全然 當分으로 아마 이配船의 方針이 定은 流産하거나 만약成立하드래도 交文으로 될것이라고한다 이와가티 十一月의 出穀期에는 現狀대로 드러가게될것이라고 觀測되는데 말하서 將來할冬節에 는 社會社 荷主도 相當한損失을 免치못할것이며 配船不足의 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의 紛糾가 생기게되지안흘가 觀測된다고한다

▲中村組加盟

京濱間의 朝鮮米新積航定은 從來 日下部 朝郵、商船、澤山、近海、辰馬의 六社에서 積載契約을 締結하든바 十月廿二日로부터 中村組도 新規로 加盟하고 七社에서 積載키로되엇다

銅建價를改正

八十一圓卅五錢

【東京電話聯合】銅市勢는 伊에 開戰問題緩和로 鈍狀을呈하는데 日本産銅水曜會에서는 二十三日 建價를 前回에 繼續하야 八十錢을 내려서 百匠八十一圓三十五錢으로改正하엿다

玄米	三六,八三	三六,〇六五
白米	三一,〇九九	

米穀證券

借換의要項

【東京電話聯合】農林省發表에依하면 十月二十五日 支拂期日의 米穀證券(第三十九回)六千八百萬圓中 二千四百萬圓을 現金償還하면 殘額 四千四百萬圓을 다음과가티 借換發行키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一、證券名稱 米穀證券(第四十五回)

一、發行額 額面四千四百萬圓

一、割引步合 日步七厘五毛

一、發行日 昭和十年十月二十五日

一、支拂期日 昭和十一年四月二十五日

一、發行方法 日本銀行引受

『中國平價切下說』

金票의狂騰이繼續

◇……上海市場은極度로混沌

【上海二十四日發電通】平價切下說로 前日恐怖的人氣에빠저 狂騰에 狂騰을 繼續하든 上海票金市場은 財界一般의 인프레風潮가 銀價低、金票高로 二十四日午前의 寄付에잇서 一千弗臺를 突破하고 千二十一弗로 前日의 定價에 比하야 二十五弗九十仙이 奔騰한뒤 다시 十九弗高로 繼續하야 千四十弗로暴騰한바 이것은 모르는노미날(名目)市勢로 市場은 混沌을 呈하엿다

日本爲替銀行觀測

【東京電話聯合】上海銀塊市勢大暴落에 關하야 日本爲替銀行側에서는 다음과 가튼 見解일에 上海市場의 混亂狀態도 解決될것이라고한다 卽 이번의 銀價低는 이미 上海投機側이 米國의 銀價引上政策과 反對로 銀賣를 한때문에 上海 爲替低를 惹起케하엿든바 政府가 海關金單位를 二元半으로改定하고 銀弗의 切下를 企圖하엿다는말이 傳하야 投機側이 出動한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平價切下는 實行키 어려운바 이것은 今의風說로 곳 銀은 反騰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그러나 上海市場은 極度의 混亂狀態임으로 不拘하고 日英파리레이트는 一志二片、日米는 二十八弗七十二仙으로 日本市場과不變이며 따라서 爲替는 日本의影響을 방지안코 매우平靜狀態를維持하다

上海輸入續減

【東京電話聯合】二十三日在上海岩井商務參事官代理로부터 外務省에 達한公電에依하면 九月中의上海貿易槪況은 다음과가다

(以下單位千萬元)

	九月中	一月以降累計
輸入	二、五八〇	四〇、一八〇

▲今年度採鹽高

【[illegible]】今年度의 採鹽作業은 朱安은 八千二百三十八圓으로 前週보다 [illegible]

北滿特産物出廻 北朝鮮으로激增

船腹不足이難免

京圖線을 通하야 淸津에 出廻할北滿特産物은 最近新穀期에드러와 激增하고 十月은 七百五十車(一萬一千噸)十一月은 八百車(一萬四千噸)의 出廻豫想이다 이에對하야 船會社(朝郵、商船)는 北朝鮮航路에 難者各四隻씩 臨時配船하야 그積載를 하게되는바 이바게 鰛油及鰛粕의 出荷가 만흠으로 船腹不足을 免치못할念慮가잇다고한다

農用林地協議

二十四日午前開催

各道林業獎勵官의 農用林地協議會議는 二十四日 午前九時부터 第二會議室에서 열고 矢島農林局長도 出席하야 鈴川林政課長說明에 山澤農産地方課主任事務官도 列席한뒤 各道의 施設狀況에 對하야 說明이 잇슨뒤 明年度計劃의 審議를하고 繼續하야 午後는 林道開設計畫의 協議에 드러갓는데 一行은 二十五日 忠北淸州郡農用林地를 視察할豫定이라고 한다

京城手形交換減少

【京城手形交換所發表】十四日로부터 一週間의 手形交換高는 二萬六千二百三十枚 一千五百二萬八千二百三十八圓으로 前週보다 九千百二十六枚 百八十一萬三千二百九十五圓의 各減少이엇다

米日爲替少高

【京城二十三日發聯合】二十三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八仙으로 三仙高 買二十八弗七十五仙으로 三仙高

經濟界消息

〇米倉七分配當据置=米倉會社第五回株主總會는 旣報와가티 二十一日 午前十時부터 열리엿는데 株主配當은 前期와가티 七分据置로하고 取締役一名補選의 件은松原氏後任인 關係上의 朝銀理事權藤守雄氏가 選任될모양이라고

〇土地改良淸算配當=土地改良會社의 淸算總會는 廿五日 午前十時부터열고 第一回配當의 件其他를 附議할터인데 第一回配當은 廿圓貳拾錢가량으로 될모양이라고

〇朝鮮運送總會 朝鮮運送會社에서는 十月廿八日 重役會 來月廿九日午後一時 定期總會를

輸出은 二、一八〇 一九、二二〇 卽輸入은 五月以來 繼續하야減退인데 輸出은 比較的健實하다 이것을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入은 四割三分 輸出은四分六厘의 各減少이며 一月以後의 累計도 各各一割四分乃至六分으로 減少하엿다한다

强氣觀의根據

戰時氣分으로 買付하엿든 株의 反動來가되고 떨허서 金融으로 玉整理過程에 드러온때이잇다 그러나 全體로 取組는 그대지 만치안코 더구나 反動來라고 하드래도 다만 買付한것에 끄치고 아즉株式界의基調가 變化한 것이 아니며 또는 財界의實勢가 惡化한것이아님으로 이整理低도 큰低價는 밟아기가어렵다 伊에戰爭이 생긴다고 顯著한好影響이잇슬것이아니다 오즉英伊間의空氣가 緊張하는대로에 時局株를 過買한傾向이잇슴으로 反動低가 잇슬것이 當然하지만그 러라고해서 今年六、七月의當時와가티 一轉悲觀에 傾할것으로 보는것은 早計가 아닐는지 한다 目前에잇서서 그戰時氣質의反動이 잇스면 整理低로 出現될 것이며 氣分은一般 民衆이나 一時的反動비으로 輕蔑히 突込賣는 警戒할바로 생각한다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四〇五
一回四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一八六〇〇

前場實物取引

▲宇治電三九〇 ▲大同電力[illegible]

商況 【廿四日】

株式 高價買를警戒

前場昂騰

昨後場에 下落하든바 今朝에 米棉一圓高 市棉三十五錢高와 스렬株强騰、生絲新高値出現을 伴하는 阪地高를보고 當地東新은 七十錢高인百六十一圓、大新四十錢高인 九十七圓三十錢、日産 七十錢高인 七十八圓八十錢、朝新 四十錢高인 三十三圓의 各高寄付가 잇슨뒤 續急의步調로 大引은 東新百六十一圓 六十錢 大新九十七圓五十錢、日産七十九圓五十圓의 高價를示하엿다

後場伸悩

高價買의警戒로 伸悩를 呈하야 東新百六十六圓 日産七十九圓八十錢에 寄付後 稍軟의大引을 示하엿다

商品高로買氣

一面積極回避

英佛伊和協工作은 繼續되고잇스나 아즉 完全한 落着을 보지못하고 잇는만큼 好轉을 보일만큼 阻止되는一面 日本財界에 期待를 둔 强氣의 買集人氣가 不無하야 下溢의傾向이 잇는바 今朝엔 外電은 米棉、市棉、스렬高等을 報하고 떨허서 生絲市勢가 다시千三圓의 高價를나타내이는等 好材料를보고 東新은 百六十一圓臺、日産은 八十圓臺를 突破하는 勝勢를 示하엿다 그러나 外로 和協工作에對한念慮 內론 豫算編成難의 不安을 압두고잇는만큼 積極買가 될수잇는 避하는傾向이 잇서보혓다

東西의仕手觀

當地는地場賣

二十八圓五十錢臺까지 昂騰하엿든 當地先限은 各地의 反落을 受하야 二十七圓八十錢臺까지 奔落하엿다 實로 新米出廻期가 到來하든 程度까지의 反落은 찰아리當然하다고 볼수잇스나 그러나第 一回米作豫想의 減收說이 多함으로 그數字를 보지안코는左右間方針을 確定키 難하다 그런데 昨今各地의 仕手關係를보면 東京의 山種一派는 年中弱氣로 서 一時渡米難을 悲觀하엿스나 朝鮮의 産地까지 蒐集的結果所要渡米의 調達이 完了되엿다는消息을傳하며 强氣側으로는馬越老

市場六感

株

千圓突破의 노픈가를 나타내이고 숨뎌이 뒤로 물너 안젓든 生絲市勢는 오늘아츰에 다시 千圓을恢復하고 千三圓의 高價出現▲이통에 玉整理期에 드러온株界도 떨어서鑑勢 ▲그런데 連日和協機運을 變치안코 繼續되고잇는만큼 아모리 强氣가 財界의實情을 가지고서 總買의고은總好買需이라고 하는것도 一理가 잇스나 實際에잇서 勇氣를 내기에어렵게되엇다▲그렁으로整理化도 容易히進捗되지못하고 兩方이 서로 警戒線을 베풀고잇슴에 注力하는商狀▲그러나 一角이 무허지는곳에 위로나알에로나 한번風波가 생길機運이 잇서보힌다……

米

▲一時渡米蒐集難으로 反撥를示하든 阪地當限은 約八十丁이나 反落하엿다 此는渡米調達의表徵▲朝鮮의産地에까지長足을 進하야 渡米를 蒐集하야 旣히積出하엿다고 某消息通은 傳한다▲그러고當地도 賣方의渡米調達이 完了되엿다고 當限의 又後一落을可期?▲馬越老의 方針은 益益

各地正米

京城弃落

淸算期近低와 賣氣配五十錢弃落이엇든 不振으로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戰線을 迎長하야 變節을하지안흘모양이오 山種의 賣方針도依然繼續되어 兩魁가 서로 對峙▲그런데 生絲界의巨將인 吉村一派가 買戰線에 出馬하엿다는 消息을 傳한다 昭和五年度의 正反對의方針▲아즉 事實인지는 몰으나 萬一 買側에 加擔하엿다하면 軟派에게는 狐假虎威가 될모양▲今朝丸仁正米는 二十八圓九十錢昨日에比하야 九十丁이나反落 此는 新米出廻의威壓?▲勿論時期가時期인만큼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可期▲그러나 第二回米作豫想의 減收程度가何如할지 買安心도亦是難

仁川弃落

當用 最初不振으로 阪地當限手當十錢高이든바 淸算當限의 低落을보고 氣配는一擧에 五十錢高率落을 演하엿는데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釜山慘落

出廻旺盛으로低廉하고 淸算當限關係로 五十錢의低落이엇는데 原料手當等으로 朝米二、〇九〇叺의賣買가잇섯는데 ◎三等廿八圓八十錢 四等廿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六錢

大邱續落

日本內地下米의 發表수로 賣不振이며 産地出廻의 進捗으로 市場賣物이 無勢를呈하엿는데 ◎三等廿八圓八十錢 一等白米 十一圓八十錢

群山下放

期着 二十輛、雖如하야 産地賣物이 旺盛하고淸算期近物의 崩落을보고 氣配가 三十五錢低이엇는데 ◎四等廿八圓八十五錢 五等廿八圓六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木浦下押

日本內地 拂下決定注關로 一般頹勢이며 阪地當限의 氣崩과、出廻漸增으로 人氣가崩하고 二十錢低이엇는데 ㊂三等廿九圓七十錢 四等廿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期米 多少底强 下澁

前場軟弱

昨後場阪地 二十七圓八十七錢止와 共히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强含止한 阪地付三十圓丁인 四十高를 補하고 二十七圓九十錢인 三十丁高로 寄付한後 阪地十錢으로 反高하엿스나 아 九十六錢까지 反落하엿다 大體伸悩狀態로 阪地〇一錢으로 〇三錢에 止寄하야 九十八 鐵八十五錢으로 八錢에 寄止하엿다

後場保勢

前場보다 六錢高인二十七圓九十四錢에始한 小往來이엇스나 底强味가잇서 七圓九十九錢에止하엿다

九限受渡槪況

廿二日에야終了

九月限의 受渡高는 朝取仁川支店開始以來 未曾有의 大受渡이엇스나 品傷虫害等으로 一般이 受渡하는바 去二十一日에야 受渡를 終了하엿는데 그成績은左記와如히 大槪良好한結果를 보이엇다

總受渡高 二萬四千二百石內에 四百石만은 合意受渡되엇다 그 提供米는 提供叺數五九、五〇〇叺으로 普通米五七% 多摩錦二四% 銀坊主一八% 龜尾一%인데 不合格總數가二、〇二六叺으로 提供總數의 三分四厘

(一) 全部不合格되엇것이 二口 卽四百叺인데 此는代用米의提供受渡를 하엿다

(二) 一部不合格으로 除外된것이一、六二六叺으로 그內에서代用米의 提供을 要한것이 一、二八一叺인데 그代用米를 檢査한結果 一、一五九叺은合格되고 一二二叺은 不合格이엇섯다

(三) 除外叺은 提供叺의 一口의 五分에 차지안코 全然 除外된것이 三六九叺이엇섯다 格下는 二口卽九八〇叺이엇는데 此는 虫喰及品傷이엇슴으로 一階級의 格下를한後에 受渡하엿다 九限의 受渡 槪評을 하면 八月限의 受渡에 잇서 不良米가 殆히全部이엇든後로

今日財界 (廿四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二七九七
大阪期米	先限	三一九三
◎三等米(仁川) 正租(仁川)	上 一石	[illegible]
一斤	下	[illegible]
銀金	一匁	[illegible]

◆株 (單位錢)

朝鮮	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	現	[illegible]

趙俊鎬米豆仲買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一六五

期米는 [illegible] 大利 然하다는 說도잇다 그러고當地는米蒐買地場筋의關係로 比較的軟勢을띄고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神戸側 汐崎 米谷側 村 岡 ▲買方=地場正米側 中東側 三品側 地場目前側 木株 式側 岡米 村

金.銀.白金 京城德力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應需 送料先金要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

金銀 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七 殖金商會 電本四五八〇番

金融 (廿四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勢 ◆朝鮮銀行勢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相場 (廿四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圓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四日)

◆京城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海外豆期米 ◆滿洲商況 ◆滿洲特産市勢 ◆綿絲油 ◆鯟粕沖價 ◆大連特産市勢 ◆大阪砂糖 ◆海外砂糖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綿絲 [illegible]

株式 (廿四日)

◆朝取短期 ◆鑑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廿四日)

◆朝取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鮮內各地期米賣買高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